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2018년 겨울 계간 62호

평신도



2018년 겨울

평신도



• 인사 회장 인사말

• 특집 희년을 산 사람들
평협 50주년 폐막식 참관기
독후감 공모 최우수상 작품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 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이야기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주보성인과 나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회장 인사말 / 손병선

특집

04 희년을 산 사람들 / 류덕희, 이강추, 허정애

10 평협 50주년 폐막식 참관기 / 이재철, 김영숙

16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독후감 공모
최우수상 작품 / 김태홍

만남

19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24 평신도가 뵈다 / 김주완

나눔

28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 이귀련

30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33 나의 신앙 선조 / 송영오

이야기

36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 조화수

39 후보성인과 나 / 김지영

배움

43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송석철

46 평신도 양서 / 김선동

소식

48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상덕 스테파노, 송란희 가밀라, 이귀련 세실리아, 이창훈 알폰소(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김태 작 <명례방에서의 초기 천주교 종교 집회도>,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회장 인사말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찬미 예수님!

평신도 희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한국교회가 평신도 희년의 은총 속에 사랑으로 열매 맺기 위한 신앙의 발을 열심히 일구며 평협 가족들과 함께 쉽 없이 달려온 나날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쁨과 보람도 컸지만,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과 나눔에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평신도 희년의 마무리 역시 끝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의 새 마음, 희년에 다져온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희망과 자비의 시대를 바라며

지난해 이맘때를 돌이켜보면 한반도에는 남북 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운이 감도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이라는 기적 같은 대반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침예하게 밀고 당기는 답답함이 있어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 교류 확대 등 희망의 끈은 부단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물결이 북미 간의 원만한 합의와 진전 속에 이루어져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바티칸에서 평양까지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를 소망합니다.

밤의 반대가 낮이라 하지만 실상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이듯, 남과 북도 갈라져 있어 반반이지만 서로 짝입니다. 반반씩 합쳐 하나가 완성되고, 하느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짝으로 만드셨듯이 말입니다. 진정성 있는 교황 초청 절차가 이루어져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북한 땅에 신앙의 새 빛이 드리워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기도를 좀 더 강도있게 드려야겠습니다.

유난히 색의 변화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은행나무 가로수 길은 사계절의 변화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 달력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길 위에 섰노란 빛깔의 카펫을 깔아 놓은 듯한 느낌은 만추를 넘어 추운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자기가 서야 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서 사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며,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나무의 성실함과 겸허함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추위가 엄습해 올 때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숙자나 가난한 이들의 아픈 가슴에, 절망의 눈빛에 더 깊게 스며드는 살가운 햇살이 되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무가 땅속으로 뿌리내리듯 우리 역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를 향해 바라보며, 더 낮고 작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바보 김수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대림 시기는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입니다. 기다림 때문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자세, 이것은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며, 그것이 바로 일상의 삶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힘입니다. 평신도 희년에 재충전된 회심의 마음,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아 각 교구는 물론 우리 한국평협에서도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2019년 2월 16일)를 전후해 다양한 추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한 해 동안 선교 활동에도 좋은 기회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종파를 초월한 한 시대의 희망과 사랑의 아이콘이셨던 그분의 삶 자체가 모든 이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분을 추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기리고, 그 영성의 길을 따라 선교의 열정과 노력을 더 기울여나가기 바랍니다.

대림 시기를 앞두고 각 교구 교구장님들께서 발표한 새해 사목교서에서도 선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대교구에서도 그동안 맺은 열매들을 바탕으로 새해 사목 방향을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사목의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180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또 “부모는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제”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며, 자녀들이 하느님의 총애 속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인척과 대자녀, 이웃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원만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가정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새처럼, 들에 핀 나리꽃처럼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 안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모자람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도와주고, 텅 빈 가슴을 영적으로 채워주는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정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새해를 맞아 평신도 희년의 정신을 가다듬어 우리 모두 ‘바보 김수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부부 사랑, 가족 사랑을 키워가며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년을 산 사람들

평신도 희년을 보내는 마음

류덕희 모세 / 경동제약 회장, 전 한국평협 회장

신앙인들에게 희년(禧年)이란 아주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시어 가난과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든 피조물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특히 인간으로서 상실한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아름답고 존귀한 참모습을 찾도록 하셨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일곱 번 보내고 난 다음 해, 즉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에는 집과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며, 부채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제도로써 희년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처럼 토지를 되돌려받게 되고, 묶인 자들은 자유를 찾게 되는 희년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더없이 좋은 제도였다.

특히나 이번에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 체험의회(한국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평신도 주일 11월 19일부터 올해 평신도 주일인 11월 11일까지 ‘한국 평신도의 희년’으로 선포됐다. 희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놀라우신 섭리에 가슴이 벅차고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평신도로서 희년이 개인과 각

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 온 교회와 사회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맞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곤 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지닌다. 사제나 수도자 하나 없이 평신도 스스로 진리를 찾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평협이 탄생한 것도 지난 1962년부터 1965년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다녀온 분들이 한국에도 평신도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1968년 7월 출범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한국평협 설립 50주년과 더불어 맞이한 이번 평신도 희년은 더욱 뜻깊은 해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평협은 이에 희년의 참 뜻을 실천하고, 그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실천사항 중 ‘전·월세 올리지 않기 운동’을 채택한 바 있다. 감사와 기쁨, 섬김과 나눔이라는 희년의 정신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실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권면한 것이다. 나는 이 운동에 깊이 공감하고, 곧바로 동참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이 채택된 지난해 말 즉시 본사 사옥에 들

어와 있는 임차인들에게 한국 가톨릭 평신도 희년의 뜻을 담아 “이번 해에는 일제히 사무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공지를 보낸 것이다. 해마다 임대료가 통상 3~5% 오르는데, 3%만 감면해도 총 7400만원이 넘는 액수다. 각자의 금액으로 보면 다소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입주해 있는 회사들에 자그마한 도움과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의 평신도 희년을 보내면서, 지난 2000년도 대희년을 맞이할 당시 한국평협 회장으로서 평신도 운동을 펼쳤던 여러 기억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기도 했다.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전개한 ‘이제 제자리를 찾아나섭시다’로 시작된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 등 모든 평신도들이 바로 나부터 새롭게 거듭나고, 참된 가정을 이루면서 좋은 이웃으로 주위의 모든 이들과 희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많은 운동을 전개했다. 그렇게 수년간 기도하고 준비하며 맞이한 은총의 대희년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로 기억된다.

이렇듯 2000년 대희년에는 평신도 운동을 주도하던 회장으로서, 또한 이번 한국 평신도의 희년에는 평신도의 일원으로서 희년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과거 대희년에 부족한 사람을 앞세워 사용하셨던 것에 늘 감사한다. 또한 십 수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에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여전히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올해 한국 평신도의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 평신도들이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매년, 매월, 그리고 매일을 희년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희년을 산 사람들 더불어 함께, 하느님 나라로

이강추 토마스 모어 / 한국가톨릭약사회장

2000년에 대희년을 지낸 한국교회는 올해에 평신도를 위한 특별한 희년을 또 한 번 지내는 은총을 받았고, 폐막미사로 마무리를 했다. 5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희년을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번 더 지낸 것이다. 희년을 마치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주일마다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성당에서 솔봉이(발달장애우, 자폐증과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맞이하고, 이들과 함께 미사를 드린다. 서울 대방동 성당에는 4년 전 주임신부로 부임하신 주수옥 베드로 신부가 솔봉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사를 마련했다. 나는 솔봉이들과 함께하는 이 미사에 참석해 봉사하고 있다. 솔봉이들의 돌출 행동이 다른 신자들의 미사참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봉이 부모님들은 아예 미사참례를 포기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솔봉이와 그 가족들의 주일미사 시간을 따로 정했다. 솔봉이들에게는 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부모님들은 뒷자리에 따로 앉아서 미사에 참례한다. 미사 중에 손뼉을 치며 돌아다니는 친구, 소리를 지르는 친구, 꺾충 꺾충 뛰는 친구 등 솔봉이들의 돌출 행동은 다양하다. 비장애인들에게야 돌출 행동이지만, 솔봉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하느님 보시기

에도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봉사자들도 솔봉이들의 행동을 제한하기보다 함께 어울리고 다독이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란이나 사고를 막고자 마음을 쓴다. 함께하다 보니 봉사자들과 솔봉이들이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서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솔봉이들도 성당 가는 것과 미사참례를 좋아하게 되었다. 주일만 되면 솔봉이들이 먼저 어서 성당에 가자고 서두른다. 미사 후에는 솔봉이들의 특별활동(교육, 율동, 미술 등)과 간식 먹는 것을 도와주며, 혼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들의 미사참례 모습이 처음보다 많이 달라진 것을 보노라면 가슴 가득 뿌듯함을 안겨준다. 미사 중 스스로 기도하거나 나가서 독서나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진지해졌을 뿐 아니라 멀리서 나를 보고 달려와서 악수를 청하는 친구까지 있어, 나 역시 감동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솔봉이 부모님들의 모임에도 종종 함께한다. 여차하면 자식에게 부모의 욕심을 쏟아붓는 비장애아 부모들의 사랑보다, 어쩌면 솔봉이들의 부모 사랑이 더 깊고 성숙함을 본다. 대방동 성당의 ‘솔봉이 미사’는 이제 소문이 나서, 양평 수원 등지에서 오는 솔봉이들도 있다.

1977년 4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나는 한센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치료받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소속기관으로 여의도의 2배 크기 면적이며, 섬 전체가 병원으로서 직원과 그 가족, 한센인들 외에 외부 민간인은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다. 많은 환우들이 눈뜬 소경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손에, 다리가 절단된 분들이었다.

소록도에 부임해서 한 달 정도까지는 꺼림칙한 느낌 때문에 환우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아침에 치료본관에 출근하면, 현관에서 의료부장실까지의 복도에 놓인 긴 의자에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우들이 늘어 앉아 있었다. 처음 한동안은 그 복도를 지나 내 방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그 복도 중간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안느와 마가렛트 간호사들의 치료실이 있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다 그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지닌 이들은 오스트리아 ‘그리스도왕 수도회’ 소속 평신도 재속회원들인데, 그곳에서는 수녀님으로 불렸다. “어디서 왔어요?” 영어가 나올 듯한데, 유창한 우리말이었다. 갓난아기 우유 먹이듯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할머니 환자 한 분을 안고

우유를 먹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의 밝은 표정으로 웃는 얼굴도….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찔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이 우리 환자를 저렇게 돌보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안면이 있는 환우와 인사를 하고, 악수와 안부도 나누게 되었다. 복도에서 나는 냄새에도 차차 익숙해졌다. 마리안느와 마가렛트의 헌신은 놀라웠다. 나도 환우들의 가정방문도 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들은 나를 은인이라 생각하여 성당에 모여 드리는 ‘은인을 위한 기도’에 나를 넣어 기도를 바쳐주기도 했다.

약육강식과 이기주의 원리가 지배해온 세계 질서를 인류 공영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노력 속에서 희년을 지내고, 또 지내야 할 우리 평신도들의 의식은 어떠했고, 또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로 서로 어울리며,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나는 ‘나’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너’일진대, 희년을 지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는 내 이웃의 범위를 우리와 다른 모든 이들로 넓혀야 ‘더불어 함께, 하느님나라로’ 지향하게 될 것이다. 

희년을 산 사람들 사도직의 희년

허정에 엘리사벳 / 한국 레지오마리에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단장

2017년 11월에 평신도 희년 개막미사를 했는데, 벌써 2018년 11월 폐막의 때가 왔다. 희년의 개막과 폐막은 무슨 의미이며, 평신도의 삶에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성경에서 희년을 들여다보니 ‘할 일을 다 마치고 일에서 해방되어 감격과 환호로 기쁘게 여유를 즐기는 해’를 뜻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할 일을 다 마치고 쉬어도 좋을 만큼 희년을 누려도 되는지 되돌아본다. “쉬어도 좋다.”라는 응답은 명쾌하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단 하루도 희년이 아니어서도 안 되고, 시작도 끝도 기억할 여지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라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종의 직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사도직의 희년을 사는 것임은 분명히 알게 됐다.

희년을 시작하는 마음은 특별한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세나투스 단장 소임을 수행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레지오 단원들의 가슴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지, 레지오의 본분에 맞게 단원들이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레지오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루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요즘 레지오 마리아는 현대의 사회구조상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과 불평을 하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안주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듯,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거를 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나 핑계도 설 곳이 없다는 뜻이다. 평신도인 우리에게 있어 희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성모님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말하는 순명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2003년에 평신도사도직이 주어지면 누구나 흔쾌히 응답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꼬미씨움 단장으로 선출됐다. 처음에는 다른 본당에서 활동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구의 타 본당 꾸리아를 이끌 자신도 없어 거절했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며 계속 선출되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거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일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니 순명해야 한다.”고 내 입으로 남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지기 싫어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결국 선출 직후, 승인도 받기 전에 레지오 마리아 한국 도입 50주년 행사를 치를 목포로 떠났다. 차량 6대에 단원들과 함께 출발하기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오늘 행사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단장 직책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부터는 웃으며 일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차량에 탑승하자 여기저기서 “저것 봐 저렇게 좋아하면서 왜 안 한다고 내송을 떠는지...”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그런 말을 소화할 능력도 부족해서 많이 속상해 하며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다. 꼬미씨움 단장 3년을 재임한 6년 동안 10개 본당 3,000여 명의 단원을 5개 본당씩 묶어 꼬미씨움으로 분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꼬미씨움 일을 하며 곳곳에서 암초와 마주쳤고,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했으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신께 매달리는 내게 “네 뒤에 내가 있다.”라고 하시며 위로해주셨다. 기도는 나의 힘ियो 방패였기에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 이후 레지아 회계, 레지아 단장, 세나투스 회계, 세나투스 단장에 선출될 때에 이유를 대거나 핑계 대는 병은 사라졌다. 지금도 평의회 방문을 가서 선거 현장을 보면, 과거의 나처럼 소임을 거부하며 울고불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감사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일까?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는 봉사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평신도들이 희년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왕 봉사하는 것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리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교우들을 대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배려심, 그리고 언제나 웃으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리라. 나뿐만 아니라 본당과 교구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며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손잡고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할 일을 다 마친 종처럼 여유롭게 희년을 살아가도록 축복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평협 50주년 폐막식 참관기

평신도 희년 자선 공연 〈빛으로 나아가다〉를 보고

이재철 베네딕토 / 고려대학교 가톨릭교우회장

완연한 가을날이다. 다소 싸늘한 기운을 느끼며 명동으로 향한다. 서울평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평신도 희년 자선공연 〈빛으로 나아가다〉를 관람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나는 11월 6일에 있는 세 차례 공연 중 오후 2시 첫 회를 택했다.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의 코스트홀에는 전철로 이동하느라 일찍 도착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10분 전에 입장하였다. 현관문 앞에는 평협의 손병선 회장님과 임원 십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질서정연하였다. 공연장 안은 이미 만석이었다. 평신도 희년 자선공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공연장 입구에는 자선 모금함이 놓여 있었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모금함이 썰렁하게 보였다. ‘자선공연은 무료공연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부공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관람하고 나올 때는 이와 다르리라는 기대로 아쉬움을 달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넓고 쾌적한 공연 장소가 교우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자주 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이곳에 찾아와 즐기며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잠시 후 조명이 꺼지며 무대가 밝게 빛났다. 1부는 〈힐링 콘서트〉다. 듀오 메타노이아의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 로제리오와 테너 송봉섭 요한, 그리고 소프라노 박보미 가타리나가 몇 곡의 노래로써 좌중을 휘어잡았다. 가을날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였다. 가수 겸 진행자인 김정식 씨의 능숙한 진행 멘트가 관객의 박수를 유도하였다. 노래도 좋았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목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로 ‘신을 향한 목소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조건 따지지 말고 박수쳐 달라.”는 멘트가 마음을 움직였다. 소프라노 박보미 씨의 ‘Nella Fantasia’는 자주 듣던 음악이었지만, 더욱 구슬프게 마음을 울렸다.

15분간의 브레이크타임이 있었다. 그제야 밖으로 나온 관객들이 모금함 근처에 몰렸다. 입장할 때는 바쁜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모금함이 새롭게 눈에 띄었던 모



▲ 듀오 메타노이아



▲ 듀오 메타노이아와 박보미 씨

양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심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무대 위에는 그새 연극 무대가 설치되었다. 서울가톨릭연극협회장 최주봉 씨가 무대에 올라 연극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2부 연극 〈빛으로 나아가다〉는 김문태 힐라리오 교수님의 원작을 서울가톨릭연극협회 작품개발팀이 각색한 작품으로 민복기 안드레아 씨가 연출하였다. 모범적인 평신도의 삶을 그린 《불꽃이 향기가 되어》(오피사랑, 2016)에 실린 ‘가진 바를 나눈 참 교육자 : 김익진 프란치스코’를 연극으로 만든 것이었다.

전남 목포 만석군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김익진(1906~1970년)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청빈과 순종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분이다. 연극은 노년의 김익진이 수녀인 딸과 함께 내내 무대 뒤편에 앉아 중간 중간 연기하였고, 시대 순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른 배우들이 등장하여 연기하였다. 어린 김익진, 청년 김익진, 성인 김익진 등이 차례로 등장해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방식이었다.

김익진은 일제 때 일본 유학에 이어 중국 유학을 한 인재였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청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인생행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다. 형 김우진이 현해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은 그를 더욱 방황하게 만들었다. 북경대에서 공부하던 그는 1927년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청년들이 항일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홍군에 들어가 참전하였다. 처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에 몰두했지만, 그의 갈증을 채우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그는 1935년 일본 도쿄의 간다 고서점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읽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1937년 세례를 받고 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하여 청빈 정신을 기렸다. 마침내 1948년 김익진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모두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그는 목포를 떠나 대구로 이사하여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가톨릭시보(현 가톨릭신문)에서 무보수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말년에 《레지오 마리아에》,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 등 교회서적 번역에 매진하면서 눈이 나빠져

특집

평협 50주년 폐막식 참관기 평신도 희년 폐막미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김영숙 리디아 / 한국평협 시복시성위원장



▲ 연극 출연진과 함께



▲ 자선공연장



▲ 소년 김익진



▲ 청년 김익진



▲ 장년 김익진의 세례

결국 실명하여 어둠속에 갇히게 되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찾아서 나아갔다.

바로 그 순간 예전의 우리 집을 보는 듯했다. 나의 부친인 가스발(1915년생)님도 가톨릭신문사의 서울분실(영업)장으로 근무하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서울대교구 착좌식 행사를 지원하셨다. 또한 미군정에도 계셨으니 아마도 김익진 선생을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부친을 만난 것처럼 눈물이 울컥 나왔다. 연극 마무리 장면에서 딸 수녀님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날 떠나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진 날, 저는 수도원 생활로 임종을 못 지킨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독백하는 대목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나 역시 부모님의 임종을 제대로 못 지켜드렸다는 그간의 회한이 일어 순간 눈물을 흘렸다.

연극을 보고나서 관객들은 성가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나라에도 평신도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의 기록이 어디엔가 한군데에 모여지기를 희망해본다. 또한 신앙을 대대로 이어온 가족들을 찾아 소개하는 그런 기록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주님의 은총을 받아 채장암 4기를 극복한 암환우로서 더욱 교회에 봉사하며 빛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였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일 년이었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2017년 11월 19에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선포되었던 ‘한국 평신도 희년’이 지난 11월 11일에 폐막미사로 막을 내렸다. 폐막미사는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과 평협 담당사제인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그리고 사무처장 홍근표 바오로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다. 명동대성당은 평협의 임원들과 신자들로 가득 찼다. 미사를 드리며 우리 평신도들에게 ‘희년’이라는 선물로 주어졌던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본당 공동체들은 희년의 기쁨과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고, 평신도들은 희년의 정신을 충분히 잘 살아가도록 도움이 될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왔다. 그간 뒷바라지를 해준 많은 분들의 숨은 공로로 인해 지금의 이 자리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 분 한 분이 깊은 감사와 축복을 빌며 미사 내내 기쁨으로 찬미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보아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평신도들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추기경님께서 강론에서 “박해도 꺾 수 없었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가르쳐 주신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셨다. 지난 한 해는 사랑이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열매이며, 그 결실을 맺는 한 해를 사목지침으로 살았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명확히 느끼는 시기였다.

희년을 마무리하는 미사에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평협 회장님은 지난 7월 21일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에서 개최된 평협 50주년 기념미사에서 제창한 선언문을 다시 한 번 제창했다.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선언문을 낭독하자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외쳤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고,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복음화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했다. 미사와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영적 힘을 얻고,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도록 힘쓰며,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여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분단과 분열의 아픔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평신도로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노력할 것이다.

이어서 평협이 지난 5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한 책 《한국 천주교 평협 50년사》도 봉헌되었다. 지난날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를 되새기는 순간이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제본이라고는 하지만, 조만간 출판되어 많은 이들이 평신도들의 자취를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모범적으로 산 평신도들의 자취를 통해 오늘의 평신도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평신도로서 나눔과 섬김의 훌륭한 삶을 살아온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시간이었다. 개인상으로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정찬남 모니카 원장님과 단체상으로 가톨릭 사진가회가 선정되었다. 정찬남 원장님은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문해 교육을 40년간 해온 분이셨다. 추기경님은 “가진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나눔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 폐막미사 후 평협 임원들



▲ 수상자와 함께



▲ 평신도선언문 낭독

가톨릭 사진가회는 각종 행사들의 기록에도 공헌한 바가 크지만, 이번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박해시대 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630여 개 공소들의 사진집을 발간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우촌은 특별하다.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에 숨어들었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 터전이었다. 그곳에서 자라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됐으며, 평신도로서 신앙을 지켜 지금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교우촌들을 사진으로 남겨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행사들을 마무리하며 추기경님께서 특별히 더 당부하는 몇 말씀을 덧붙이셨다.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할 일이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손잡고 함께 걸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신도의 본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격동하는 50년을 열심히 살아왔듯이 100주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겠다. 앞으로 50년을 늘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순교로써 지켜온 신앙의 선조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도록 살아야 하겠다. 폐막미사를 드린다고 끝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인 것이다. 이 시대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평신도의 사명을 깨닫고,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성당을 나섰다.

‘성실하고 참된 증인(묵시 3,14)이 되어,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라는 평협의 새로운 표어가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독후감 공모 최우수상 작품 약 속

- 『불꽃이 향기가 되어』를 읽고 -

김태홍 대전 안드레아 / 광주대교구 남동성당

주일미사가 끝나고 들른 골목은 여전히 한적했다. 무겁게 발길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첫 번째 집 대문이 보이자 곁에 있던 딸애한테 묻는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겠니?”

“응, 그때 그 할머니 댁이잖아.”

별로 생각해보는 기색도 없이 답하는 걸 보니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곧바로 생각지도 못한 물음을 내게 던진다.

“아빠, 오늘 할머니 보러 가?”

아이의 질문은 고요하지만 거센 소용돌이가 되어 날 몇 해 전 이 골목으로 빨아들었다.

로사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4년 전 봄이었다. 당시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본당 내 빈첸시오 회와 연계하여 근방의 독거 어르신들을 1대1로 방문하여 말벗도 돼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일을 도와드리는 봉사가 추진되고 있었다. 그때 내가 전담하여 봉사하게 된 분이 로사 할머니였다. 성당과 꽤 떨어진 골목길에 위치한 댁으로 찾아가 보니 이미 여든다섯을 훌쩍 넘긴 고령이신데다 관절염으로 미사참례도 어려운 편이었다.

“내가 육고녀(旭高女) 출신이여. 육고녀!”

두세 평 납짓한 방에 들어와 인사를 드리자마자 카랑카랑한 첫마디로 당신이 살아온 날을 풀

어내시기 시작하셨다. 반세기가 넘도록 안으로 삭이고 쥘어놓았던 세월들이 긴 호흡의 이야기로 되살아난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지방 군수의 딸로 태어나 신식교육을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평탄한 청춘의 꼬트머리에 음악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족함 없이 지내신 것까지가 삶의 달콤한 초입이라면 몇 해 전 할아버지를 떠나 보내신 뒤 홀로 지내시는 단칸방은 애달픈 뒤안 길이었다.

그날 할머니의 사연과 쓸쓸한 골목길의 풍경이 못내 애처롭게 각인되었던 걸까.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진 횡수대로 착실히 찾아가 파스며 로션을 발라드렸고 간단한 안마도 해드렸다.

어느 주일에는 종일 적적해하실 할머니를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무렵 유치원생이던 딸애의 재롱에 아껴놓은 간식을 내주시며 즐거워하셨다. 처음 빈 이래 가장 밝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내 안 깊은 곳에서 치밀어올랐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빠지지 않고 봉사를 다니던 여름이 지나 산과 들이 서늘해지자 여행이며 각종 행사가 늘어난

다. 고민 끝에 이번주에는 못 갈 것 같다는 전화를 드리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란 할머니의 말씀에 편하게 한 주를 건너뛴다. 대부분 이런 변명은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은 쉬운 법이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어찌지? 할머니는 그냥 다음주에 찾아봐야겠다.’

그러나 다음주에는 또 다른 약속들이 기다리기 마련이었으니 처음에 조그맣던 핑계가 미세한 균열이 되어 마음의 독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때마침 할머니께서도 많이 바쁘면 그리 자주 안 와도 된다고 하셨으니 제법 그럴듯한 변명거리도 생긴 셈이었다. 그렇게 방문하던 횡수가 적어지는 만큼 가슴속의 열기도 점점 식어간다. 그러던 언젠가부터는 한 달에 두 번 방문해야 할 소임을 잘 지내시냐는 안부전화 한 통으로 갈음하고 그 얼마 뒤에는 주일마다 드리던 전화마저 뜸해지게 되었다.

그런 채로 연말이 지나고 이듬해 정월이 되었다.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할머니 댁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던 차에 빈첸시오 봉사자에게서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게 되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이미 아득해져버린 마지막 만남 때 외국에 있다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하시던 모습만이 눈앞에 오래도록 잔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의 죽음에 단단히 엉겨 붙었던 우울감은 점차 물긋해져 갔다. 연락이 닿은 유족에게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린 것으로 내 할 바는 다했으며 여든을 훨씬 넘겨 돌아가셨으니 그래도 호상(好喪)이라는 생각으로 비어 있던 마음을 서둘러 메워버렸다. 그럼에도 가슴속 어딘가에 딱딱한 느낌이 남긴 했지만 그런대로 녹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뒤 두어 번 꽃이 피었다 지고 세월은 사뭇

이 흘렀다. 나른한 일상에 할머니의 본명도 서서히 잊어 갈 무렵 애들 책을 빌리던 도서관에서 『불꽃이 향기가 되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평신도 다섯 명의 일대기를 주석과 사진을 곁들여 기술한 서적으로 첫 장을 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번 읽고 다시 대출을 받아 읽어볼 정도로 흡입력이 대단했다.

사실 처음 읽을 때는 그들의 영성보다는 인간적인 행적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가령 김익진 선생이 베이징 대학에 다니던 시절 모택동과의 친교로 홍군(紅軍)에 입대한 일이며 빈농의 자제로 태어난 김홍섭 판사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지 1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들이 그렇다. 서상돈 선생의 경우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신자의 자손이었지만 빼어난 인품과 상재(商材)로 조정의 조세시찰관으로 등용되었으니 웬만한 대하드라마의 소재로도 손색이 없다. 제주도 초대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여사와 제2공화국의 총리를 지낸 장면 역시 고난을 이겨내고 시대의 표상으로 우뚝 섰으니 더 말할 게 없으리라.

하지만 두세 번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 들었던 생각은 빗나가고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은 각각 달랐지만 그들 삶의 안쪽에는 똑같은 고갱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익진 프란치스코는 도쿄의 간다(神田)거리 고서점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처음 접했을 때 결심했던 것처럼 훗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바치는 데 한시도 주저하지 않았고, 김홍섭 바오로 역시 병마의 고통 속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죄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길 멈추지 않았다.

최정숙 베아트릭스는 어찌 하였던가. 일찍이 수녀가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항일 전력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평생 독신으로 써 온 삶을 민족의 개명(開明)에 바쳤으니 주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종이 또 있을까.

서상돈 아우구스티노와 장면 요한은 각각 나

라를 움직이는 거상과 재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경술국치와 5·16 군사정변이란 장벽 앞에 자신이 세웠던 지고한 뜻이 꺾이는 고난을 맞아야 했다. 그럼에도 겸손히 순명하여 남은 생을 오로지 주님을 섬기며 생을 마쳤다.

이처럼 다섯 명 중 어느 한 사람의 생애도 쉽고 녹록한 면이 없다. 구한말부터 분단에 걸친 혼란의 시대 속에서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 한순간만 편히 맘먹으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지내지 않아도 될 이들 아니었던가. 그런 이들을 한곳으로 이끈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세속에서 채워질 수 없는 복락(福樂)이었으니 모두 하느님께 기대어 자신의 작은 안락을 버린 채 주위의 수많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었다. 지쳐 쓰러진 이웃을 안아 일으키던 그들의 손길들이 믿음의 불꽃으로 타올랐을 때 세상은 주님의 맑고 깨끗한 향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백년의 시간을 넘어 약속이란 단어로써 날 지나간 목상의 길로 이끌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고 사라졌지만 길의 끝에는 주님, 그리고 로사 할머니가 계셨다. 그때 난 도대체 뭘 했던 걸까. 해선 안 될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부끄럽던 지난날들이 머릿속을 지나간다.

난 분명히 가톨릭 신자다. 주일이면 미사를 참례하고 누구 하나 해코지한 적 없이 나를 선량하게 살아왔으니 타인의 눈에는 꽤나 독실한 신자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그런 내 신앙이 군대를 겨우 면한 냇내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믿음이란 불꽃을 태우더라도 그 안에는 나태와 위선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 어찌 곱고 청아한 향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뭐라 해도 이웃과의 약속 하나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며 마치 옛 로마시대의 기억말살형이라도 내리듯 잊으려고만 했다. 실제로 로사 할머니

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댁이 있던 골목을 찾지 않았고 심지어 갈 일이 있다면 멀리 돌아가곤 했으니 이미 난 불씨 하나 없이 어둡고 차가워진 내 양심과 대면하기 싫었던 게 아닐까.

헤아려보건대 신앙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약속일지니 일어나 올리는 아침기도는 그에 대한 다짐이며 잠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성찰이다. 그러니 평신도로 산다는 것은 곧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 약속들을 하나 둘 충실히 지켜간다는 의미일 게다. 그래서인지 딸아이의 물음이 마음 한구석에 쓰리게 파고든다. 이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게 된 약속이 더없이 아프게 꿈틀거리는 것이다.

실로 오랜 시간을 돌아 로사 할머니 댁을 찾아왔다. 4년 전 처음 왔을 때처럼 내 안에 하느님의 불꽃을 오롯이 간직한 채 살 수 있을까. 대문 앞에 서니 죄송한 마음과 함께 다시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에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딱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문득 오래전 읽었던 복음 말씀 하나가 메마르고 차가운 가슴 한가운데에서 떠오른다. 그리고 조금씩 따뜻하게 스며든다. 오래전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해매던 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것처럼 부디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품으로 이웃들을 보듬어 줄 수 있기를.

할머니를 위해 떨리는 손으로 성호경을 긋는다. 발길을 옮기려던 찰나 중천에 뜬 태양이 구름을 걷어내고 골목을 구석까지 환히 비춘다. 그 사이로 바람이 시원한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류해석 시몬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대구광역시 남산동 대구대교구청 안에 자리한 성모당은 교구 수호성인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된 성지로 대구대교구의 상징이자 기도처이다. 올 한 해 대구대교구는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와 각종 행사가 줄을 이었는데, 여기에는 특히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대구평단협) 봉사자들의 공로가 컸다. 류해석 시몬 회장은 오랫동안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통해 단련된 깊은 성모신심으로 대구평단협 회장 직분을 1년여 동안 성실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바쁜 일정 틈틈이 요청 드린 자료를 세심히 챙겨주시고 도움을 주신 류해석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 대구평단협의 올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었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는지요?

무엇보다 대구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평단협 주관 도보성지순례는 여러 코스를 지정해서 본당별로 순례 후, 성모당에 집결하여 미사를 봉헌했는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모당에서 문인회, 사진가회, 전례꽃꽂이회 등의 단체들이 전시회를 개최해서 더욱 풍성한 해가 되었습니다.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대회 등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행사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구평단협 봉사자들은 이처럼 올 한 해 이들 제 단체의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기억에 남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었는지요?

지난 10월 13일에 조환길 타대오 대교구장님 등 사제단과 교구민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미사를 가진 것입니다. 미사 예식 중에는 올 한 해 대구 평신도들이 100주년을 기념해 묵주기도 봉헌 운동을 펼친 결과물로 4,673만 8,520단을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 미사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교구장 뤽 라벨 대주교와 벨포르-몽벨리아흐교구 도미니크 블

령세 주교 일행 분들도 함께하셔서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대교구는 우리 대구대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신 드망즈 주교의 고향이고, 벨포르-몽벨리아흐교구는 계산동 본당 초대 주임인 로베르 신부님의 고향이지요. 대구 평신도들은 올 한 해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보내면서 “회개하라”는 루르드 성모 마리아의 요청대로 늘 쇠신을 통해 신앙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평신도 목주기도 4,673만 단 봉헌에 감사

❖ 취임 이후 1년 동안 대구평단협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기억나고 보람된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평단협 월례회의나 각종 행사에 상임위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많이 향상된 것이 가장 기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대구평단협 산하 제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개월여 동안 실시한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목주기도 운동에 교구의 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673만 단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했고, 가슴 깊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 대구대교구의 성지이자 기도처인 성모당 앞에서 조환길 대교구장과 함께한 류해석 회장(앞줄 오른쪽)

❖ 교구장님 사목방침에 따라 2018년은 ‘자비의 해’로 보내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대구평단협은 조환길 대교구장님의 사목교서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실천사항을 정했습니다. 2018년은 자비의 해, 2019년은 용서와 화해의 해, 2020년은 치유의 해로 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해서 루르드의 성모님께 봉헌하기로 했지요.

그 첫 해인 올해 자비의 해에 대구 평신도들은 ‘회개의 해’를 살았습니다. 교구와 각 본당 및 단체들이 각계각층 신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운동을 권장했고, 성모당에 설치된 ‘상설 고해소’를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2018년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참회예식을 거행하고, 판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순시기에 많은 본당들이 참회예식을 거행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참회예식이 반응이 좋아서 이번 대림시기에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냉담자 회두와 비신자 선교에 총력

❖ 올해는 특별히 평신도 희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희년을 보내셨는지요?

11월 10일 폐막미사를 끝으로 올해 평신도 희년이 마무리됐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대구평단협은 평신도 희년의 의의를 되새기며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제 단체 단위로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교구가 지정한 평신도 희년 순례지를 홍보하고 신자들이 전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2018년 대구 평신도들의 활약상을 정리한 《대구 평신도》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 류해석 회장 등 대구평단협 임원들은 올해 ‘자비의 해’에 각 본당 및 단체들이 각계각층 신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운동을 권장했다.

❖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은 신앙인답게 살아가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대구주보>에 매주 ‘답게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사항’을 연재하여 자그마한 일이라도 신자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 주보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겠습니다’를 실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위한 기도문을 제작 배포하여 신자들이 많이 바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 대구평단협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대구평단협의 1년 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평단협 총회를 10월 27일 개최했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의 평신도사도직을 활발히 수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구장님

의 사목 지침에 따라 냉담자 회두와 비신자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평신도 희년의 기쁨을 올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다짐도 했습니다. 성사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연대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전, 분단과 분열의 아픔 치유를 위한 용서·화해·협력 등 분야별 사도직 활동에 더 매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회장님은 한국평협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평협 활동이 회장님께 주는 기쁨이나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신자들이라면 어떤 단체든지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들을 경시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는 다른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올 한해 대구대교구는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아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행사가 잇따랐다.



▲ 대구대교구장기 테니스 대회. 대구평단협 봉사자들은 제 단체의 여러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올 한 해 대구평단협은 월례회이나 각종 행사에 상임위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많이 향상됐다.



▲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과 함께

저도 레지오 마리아를 통해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평단협에서 몇 년간 활동하고 회장까지 맡게 되니 자연스럽게 다른 단체들의 활동상과 현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교회의 기둥은 우리 평신도들이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평단협회장 직분을 맡아 다양한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는 제 단체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보람입니다.

레지오는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 이정표

❖ 대구대교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단장으로서 오랫동안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레지오 활동을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레지오는 저에게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 이정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한 평신도 사도들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 6,8)라고 순명하는 것 역시 레지오 단원의 덕

목입니다.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후에,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라고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단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깊은 성모신심이 느껴집니다. 대구 레지오의 역사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57년 왜관 성당 중도의 모후 뿌레시디움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아는 1958년 대구 의덕의 거울 뿌리아 설립 이후 1959년 꼬미씨움으로, 1986년에는 레지아로, 2003년에는 세나투스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역사지요. 지난해 6월 6일에는 대구 레지오 도입 60주년 감사미사를 범어동 주교좌성당에서 3,000명의 단원과 내빈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날 조환길 대교구장께서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정신은 겸손·믿음·순명의 정신이다. 성모님은 당신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았고, 우리도 이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도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1978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처가가 독실한 신자 집안이었고, 아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의 생활 태도에 많은 감명을 받아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혼인성사를 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입단은 1988년에 했으니 꼭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소위 ‘주일신자’였는데, 잘 알고 지내던 형제의 권유로 레지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뿌레시디움 단원들과의 친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하고 억지로라도 묵주기도도 바치고 평일미사 참례도 꾸준히 했습니다. 물론 단원들을 따라 활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의무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몇 년간 꾸준히 하니 몸에 배어 습관처럼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요. 마침 우리 뿌레시디움이 분단을 하게 되어 단장을 맡았는데, 얼마 후에 본당에 레지오를 사랑하시는 신부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 남성 뿌레시디움 배가운동을 해서 뿌리아가 신설되어 신부님 추천으로 뿌리아 단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 레지오 활동에서 오는 깊은 기쁨이 오롯이 전해져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고비도

찾아옵니다. 그와 관련해 평신도들에게 주실 지혜로운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제가 레지오 신심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당에서도 시설위원장, 선교위원장, 사목총무 등 여러 직책을 차례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제 사업일도 바빴지요. 그래서인지 그때는 기쁨보다는 의무적으로 직분을 맡아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에 활동이 꼬리를 무니 어느 순간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정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던 중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는 구절이 가슴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너무 젊었을 때부터 간부직을 수행하다 보니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순명’이 제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내가 하고 있지만,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본당 활동도 레지오 활동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것이 되니 봉사직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 꼬미씨움 단장, 세나투스 단장 등의 새로운 봉사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성모님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교구별로 조직되어 있는 가톨릭교수회의 협의체인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는 교구 교수회 간의 상부상조와 가톨릭 신앙의 함양, 가톨릭 정신을 통한 학문의 연구, 교수직을 통한 교회의 발전과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각 대학 가톨릭 학생회 지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교구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지만, 기록의 산재와 부재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제14대 회장 겸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 제16대 회장이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인 최규하(시몬) 회장은 자료를 찾고 직접 전임 회장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기록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의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내에서 가톨릭교수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려면, 서강대 총장이셨던 박홍(루카) 신부님을 빼놓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신부님께서 어느 날 숙명여대 한용희(암브로시오) 교수에게 가톨릭교수회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신 게 공식적인 태동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한용희 초대 회장께서 2002년 1월 8일 작고하셔서 더 이상 자세한 배경까지는 알 수 없으나,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1980년 후반이면 우리나라에 88올림픽이 개최되었지요. 그 후 본격적으로 한국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었을 거고, 모든 분야에 새로운 각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될 무렵, 박 신부님께서 ‘가톨릭 교수들이 무언가 작게는 대학 사회,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역할을 할 때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낸 바로는 그때가 1990년 중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1990년 12월에 서울 지역 가톨릭교수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시작된 곳이 서울이었기에 공식적으로는 지금의 표현으로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이하 서가협)의 태동이라고



▲ 최규하(시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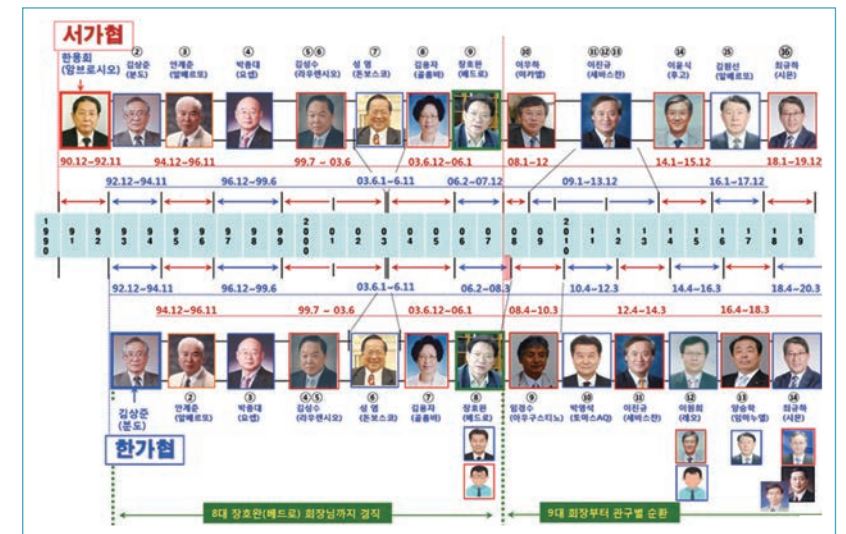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가협의 태동이고,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이하 한가협)의 태동은 이렇습니다. 2대 회장 서강대 김상준(베네딕토) 교수께서 ‘서울 지역 교수들만 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박 신부님의 제의에 따라 시작했다.’고 직접 저에게 말씀해주셨지요. 김 교수께서 그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셨고, 1992년 11월 15일자 「가톨릭신문」에 보면 ‘1992년 11월 8일 서강대 김대건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박홍 신부의 서강대 총장 시절 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강대 김상준 교수를 선출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거슬러 최초로 서울가톨릭교수회의 태동 시점을 1990년 12월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한가협의 설립은 주교회의 기록상에는 1993년 6월 5일 설립, 1993년 6월 30일 인준으로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이날 일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가톨릭교수회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한가협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교구별로 다양한 가톨릭 교수 단체 혹은 가톨릭 대학생 지도교수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1979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하고 있는 ‘영남 4개 교구 가톨릭교수회’입니다. 사실상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되다 보니, 교수회 탄생의 공식 기록을 1990년으로 잡고는 있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한국 내 가톨릭교수회의 태동 시점을 1979년으로 변경해야 할 듯 싶습니다.

❖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서울, 대구, 광주 관구 등 세 지역의 가톨릭교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운영체제는 한가협 8대 서울대 장호완 회장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교구별 회장을 대표회장과 공동회장으로 하여 상호 각 관구의 활동을 관장하면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신 것이지요. 곧, 3명의 관구 회장들이 모두 공동회장이고, 그중 한 관구의 회장이 대표회장을 순차적으로 맡는데, 해당 관구에서 사무총장 1명을 맡습니다. 물론 한 분의 담당사제가 지도해 주시게 되어 있고요. 올해 3월 말까지 광주관구(광가협) 회장이 대표회장이었는데, 앞으로 2년간 서울관구(서가협) 회장인 제가 대표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사무총장은 우리 서가협 수석 부회장이신 서울대 류판동(이시도로) 교수이신데, 엄청 바쁘신 중에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박홍 신부님이 지도해 주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올해부터 서강대 교수이신 박병준(루이스) 신부님께서 담당사제로 우리 한가협 여러 활동에 많은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 역대 가톨릭교수회 회장



▲ 한가협 부활맞이 사순절 대피정(2018년 3월 24~25일)

❖ 평소에 수행하는 주요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가협의 활동은 매년 사순시기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초 정도 되겠지요? 대표회장이 소속된 관구의 교수협의회가 주도하여 '부활 맞이 사순절 대피정 및 정기총회'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4~25일에는 광가협이 주도하여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대표회장의 교수협의회에서 연 1회 정도 연례행사인 대피정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게 주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분기별로 담당사제이신 박 루이스 신부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협의해 나가자고 회장단 회의를 추가해 본 정도일 뿐입니다. 전임 회장님들이 한가협을 맡으셨던 시절에는 매년 여러 차례 세미나, 학술 발표회들이 개최되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네요.

❖ 최근에 끝난 대규모 행사나 조만간 있을 행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가협 행사는 11월 17~18일에 안양 아론의 집 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들의 역할을 강조해 보고자, 이번 피정 주제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가톨릭 지성인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서가협 담당사제 최준규(미카엘) 신부님께서 전체 기획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첫날 최 신부님께서 직접 강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저도 한 강좌를 했습니다. 또 한가협에서는 내년 4월 13~14일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연례 피정 및 정기총회를 갖게 됩니다. 곧바로 성공적인 피정 준비를 위해 계획도 수립하고 준비회의도 가지려고 합니다.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복이 많은 건지, 작년 11월 24일 서가협 정기총회에서 제가 불참한 상태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여기며 약 1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말자마자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긴 것은 우리 한가협, 서가협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싶어 여기저기 뛰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임 회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역대 가톨릭교수회장'이라는 일목요연한 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 회장님만을 못 찾았는데, 겨우 한용희 교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기쁨과 함께 실망 또한 컸었습니다. 이미 십수 년 전에 선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준 적이 없

었는데, 제가 좀 떼도 썼고요. 또 최준규 지도신부님께서 노력도 해주셨고 해서 얼마 전 문창우 주교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아마도 주교회의에서 임명장을 처음 받은 회장으로 공식 기록일 것 같네요. 임명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구나 주교회의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인정까지 해주셨다는 점이 앞으로 일을 맡게 되는 회장이나 간부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향후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해 주십시오.

교수협의회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직장사목이라는 꼭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마다 각자의 본당 소속인 만큼 교수들 스스로 직장에서도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 교수들에게 연구 실적이다 학생 지도다 또 대외활동이다 등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대학 내 가톨릭교수회의의 활동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서가협 또는 한가협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회장으로 선임되자마자 각 대학 대표 교수님들에게 전화하면 마치 외판원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회신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도 간혹 회신해 주시는 몇몇 교수님들의 덕분에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 들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 주교님께도 건의를 드렸습시다만, 한가협이나 서가협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다 보니 활동 후의 기록들이 총무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의 소중한 기록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구 등 특정 장소에 책꽂이 하나라도 마련해 주시면 하는 희망입니다. 



▲ 배론 성지순례(2018년 5월 18일)



▲ 서가협 피정 후 파견 미사(2017년 11월 26일)



▲ 서가협 제4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2일)



▲ 서가협 제29회 피정(2018년 11월 17~18일)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조선시대 고해성사 전 목상 지침서, 《성찰기략(省察記略)》

정리
이귀련 편집위원

조선에서 선교하던 다블뤼 주교가 펴낸 고해성사 길잡이

조선시대 교리서들은 중국을 통해 전래된 것이 많으나, 《성찰기략(省察記略)》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던 프랑스 신부에 의해 편찬된 책이다. 이 책은 1864년에 간행된 한국 천주교회 초기 교리서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이자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을 지낸 다블뤼(A. Daveluy, 1818~1866년) 주교가 고해성사 준비를 위한 성찰서로 저술한 책이다. 1864년 서울의 성서 인쇄소에서 제4대 교구장 베르뇌(S.F. Berneux) 주교의 감준을 받아 목판본으로 초간되었다. 이어 1882년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그리고 1890년에는 서울에서 활판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성찰기략》은 인쇄본 외에도 필사본 형태로 신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책

《성찰기략》은 신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올바른 고해성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성찰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자세를 제시한 책이다. 동시에 모든 신



▲ 《성찰기략》 속표지

자들이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에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였다.

고해성사는 죄인의 죄를 그냥 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탁덕(鐸德, 신부를 지칭하는 옛말. 원 뜻은 '덕[德]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다.)에게 낱알이 고한 뒤에 사함을 받는 성사이다. 이때 죄는 밖으로 드러난 죄만 고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범한 죄까지 고해해야 하는 것이다. 《성찰기략》은 제대로 된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 아니라, 고해를 준비할 때마다 읽어 보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성서를 바탕으로 쓰인 한국 천주교회 초기의 교리서이다.

구성과 내용

《성찰기략》은 서문과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 형식의 글에서 저자는 많은 교우들의 잘못된 고해 준비와 성찰로 인해 진정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고해성사, 죄, 성찰의 태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천주 십계와 성교사규(聖敎四規, 천주교 신자가 지켜야 할 네 가지 법규), 칠죄종(七罪宗)에 근거하여 각종 죄목들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이에 위반된 여러 형태의 잘못된 행실들을 나열한 뒤, 이 책을 읽는 신자들도 그릇된 행실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양심 성찰을 하도록 돕는다.

천주 십계의 제1계에서는 천주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저버리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경계하며, 배교 행위나 조상 제사를 비롯한 각종 미신 행위들을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제2계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맹세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에 함부로 맹세하는 행위를 모두 경계하고 있다. 제3계에서는 주일과 침례날(미사를 드리는 날)을 충실히 지키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4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가와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정부 당국자들이 천주교를 무부무군(無父無君, 아버지도 임금도 없다는 뜻)이라고 비



▲ 《성찰기략》 본문

난하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써 특히 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국가의 정당한 법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아래 올바른 국가와 신자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5계에서는 말과 행위로 인해 남을 해치는 경우를 경계함과 아울러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금지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6계와 제9계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문제, 즉 사음·음란·간음 및 남녀 간의 윤리 등에 대해 엄격히 밝히고 있다. 제7계와 제8계, 그리고 마지막 제10계에서는 남을 속이거나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맺음말

《성찰기략》은 신자들에게 고해 전 준비로서 양심 성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자 했다. 고해에 임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촉구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윤리 규범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등성을 전제로 한 사회관과 새로운 인간관은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신분 질서를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당시 지배층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박해 시대 신앙선조들을 굳건히 지탱해 준 독실한 믿음뿐 아니라, 시대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변치 않는 하느님 말씀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다. 

참고 문헌

- 달레(Ch. Dallet), 최석우·안응렬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분도출판사, 198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 《성찰기략(省察記略)》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권철신 암브로시오

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2017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의 모범입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마태 19, 27)

하늘이 시운(時運)을 살피 현량을 내셨으나
참소하는 무리 매우 모질어 이 어진 분 죽였도다
공의 덕용(德容) 생각하니 온화한 봄 기상일세
백세 뒤에는 다시 공을 알 사람 없겠기로
이 변변치 못한 글을 묻어 천명(天命)을 기다리
노라

—정약용, 「녹암 권철신 묘지명」 중에서

권철신(權哲身, 암브로시오, 1736-1801년)은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51-1792년)의 형이다. 본관은 안동. 자는 기명(既明). 호는 녹암(鹿菴)이며, 당호는 감호(鑒湖)이다. 복자 권상문(세 바스티아노)의 백부이자 양부이기도 하다. 경기도 양근의 감호(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권철신은 일찍부터 부친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24세 되던 1759년(영조 35) 성호 이익(李瀾, 1681-1763년)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퇴계 이황과 백호 윤휴 등 기호 남인계의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여 점차 성호학파의 존경받는 학자로 지목되었다. 이병휴·안정복·윤동규·신후담과 홍유한·이기양·한정운 등이 당시 그의 학문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다. 특히 이병휴는 죽을 때까지 권철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권철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녹암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익·이병휴가 사망한 다음이었다. 이때 그의 문하에 들어간 인물들은 김원성·이충익·이존창·홍낙민 등이었다. 그리고 이어 이승훈, 정약전·약용 형제, 이윤하·이벽·윤유일과 조카인 권상학도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벽이 권씨 일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 확신을 가지고 믿은 동생 권일신과 달리 권철신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럴 것이 새로운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학문적 업적과 그와 관계를 맺어온 여러 사람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학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았을 때, 권철신은 온

마음으로 수계하기 시작했으며 집안사람들도 모두 실천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싶은 열망에 많은 벗과 지인들에게도 설교했다. 1779년(기해년) 겨울의 주어사(走魚寺) 강학은 권철신의 주도로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정약전, 김원성, 권상학, 이충익 등 여러 명이였다. 권철신은 스스로 규정을 정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얼음물을 떠서 세수를 한 다음 「숙야잠」(夙夜箴)을 암송하고, 해가 뜨면 「경재잠」(敬齋箴)을 암송하고, 정오에는 「사물잠」(四勿箴)을 암송하고 해가 지면 「서명」(西銘)을 암송하도록 하였으니, 씩씩하고 엄하며 정성스럽고 공손함으로써 규도를 잃지 않았다.’ 이 강학회는 녹암계 인물들이 종래의 유교적 강학 형태를 빌려 서학에 대해 처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이미 여러 형태로 천주교 신앙을 담은 한역 서학서에 접해 오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801년 2월 11일 심문 중에 금부도사 박조원이 “너는 교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 세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에는 사학(邪學)보다 급한 것이 없다. 이를 금지하는 방도에



▲ 천진암 성지에 있는 권철신 묘. 권철신을 비롯하여 초기 한국교회 신자 이벽, 이승훈, 권일신, 정약종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어떤 계책이 필요하겠는가? 너는 이미 사학의 이면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계책도 알 것이다.” 하고 묻자, 권철신은 “정학(正學)을 밝히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너무도 마땅한 대답이었으나, 권철신이 말하는 ‘정학’은 반대자들이 말하는 ‘정학’과는 달랐다.

“네가 양근 사학의 우두머리나?”

그 무렵 천주교에 관한 활기는 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권철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교리를 신봉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나, 정부 측 기록을 보든 교회 측 기록을 보든 이구동성으로 그를 ‘신부, 대부, 사학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였다. 신앙인으로서 권철신의 삶이 어떠하였기에 그러했을까. 정약용이 권철신을 위해 지은 묘지명을 읽어 보면 저절로 수궁이 간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뜻을 봉양하며, 친구와 형제를 한 몸처럼 아끼는 데에 힘쓰니, 그 문하에 들어간 자는 다만 한 덩어리의 화기(和氣)가 사방으로 퍼져 마치 향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것이 지란(芝蘭)의 방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

나눔

나의 신앙 선조

나의 아버지 송 주교



송영오 신부 / 수원교구 상현동 성당 주임신부



▲『추안급국안』,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조선시대 중죄인의 심문 내용과 판결문을 모은 책으로 권철신의 심문 내용이 실려 있다.



▲『성년광익』,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이 책은 365일 매일 그날에 선종한 성인 성녀들의 전기를 수록한 성인전으로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가져왔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교이자 교회학자였다. 특히 강론을 열심히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의 강론을 듣고 개종하였다. 권철신이 암브로시오 성인을 수호성인으로 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었다. 아들과 조카들이 집안에 가득하나 마치 친형제처럼 화합하니, 그 집에 10여 일이나 한 달을 머문 뒤에야 비로소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노비와 전원, 또는 비축된 곡식을 서로 함께 사용하여 내 것 네 것의 구별이 조금도 없으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길이 잘 들고 순하여 서로 싸우는 소리가 없었다. 진귀한 음식이 생기면 비록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루 나누어 종들에게까지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친척과 이웃이 감화되고 향리가 사모하였으며,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우러러보니, 학문과 행검(行檢)을 힘쓰는 상류 사족(士族)들까지 모두 공을 사표로 삼아 자제를 문하에 들여보냈다.”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신자 공동체의 삶과 빼닮았던 것이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

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4-47)

권철신은 초기 교회 신자들처럼 아름답고 빛나게 복음을 살았다.

‘권 암브로시오는 음력 2월 22일에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아 죽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가 덧나서 죽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 밖에서 죽었다고도 한다. 권 암브로시오의 항구함에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그러나 달리 어떠한 자료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한 단순한 의구심 때문에 우리는 이 교우에 대한 기억을 더럽힐 수 없다. 권 암브로시오의 마음가짐과 행실은 오랜 세월, 그리고 형벌을 받는 순간까지 너무나 확고하였던 것이다.’

다블뤼 주교가 쓴 『비망기』를 빌려 권철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본다. 그는 현양 받아 마땅한 순교자이다. 

나는 가정에 관한 강의를 할 때면, 사람은 각자가 자라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성장한 고향 장호원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한다. 쌀과 복숭아로 유명한 장호원의 시장통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5일마다 들어서는 시장 안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일찍 알게 된 것도 사제가 된 지금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다. 또한 가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소중한 밑천이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어려서부터 열성적인 아버지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간들 무슨 원망을 할 수 있는가?” 하시며, 늘 구약시대의 ‘욥’ 성인을 당신 신앙의 기초로 생각하셨다. 아버지는 양복보다는 가죽점퍼를,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즐겨 신으시는 털털하신 분이시다. 아버지는 늘 오토바이 기름통에 나를 태우고 평일미사를 다니셨고, 내가 첫영성체를 받는 날부터 제단에서 복사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입버릇처럼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곧 당신 신앙의 완성이요, 소원이셨던 것이다. 40대 초반에 본당 총회장이 되신 아버지는 본당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셨고, 굶은일이 생기면 언제나 도맡아 처리하시는 장호원 성당의 해결사이셨다. 초상이 나면 늘 우리 집으로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구성진 아버지의 연도 소리는 인간문화재 그 자체였으며, 돌아가신 분을 위한 염습은 하느님께서 아버지께 내려주신 천직으로 생각하셨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 고약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장호원 성당은 늘 초임 본



▲ 송영오 신부의 부모님

당신부가 대부분이고 젊은 신부들인데, 아버지는 신부들에게 술을 너무 많이 권해서 곤경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혹 술이 센 신부들을 만날 양이면 신부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떻게 사목을 하느냐는 식으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셨다. 다혈질적인 성격과 물불 안 가리는 행동으로 본당신부님과 수녀님들을 힘들게 하시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송 주교’라는 별칭을 얻게 되셨고, 주교님도 인정하시는 수원교구의 유명인사가 되어 버리셨다.

젊은 시절, 본당을 신설하면서 손수 질통을 짊어지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지은 성당, 신자들이 함께 시멘트를 비벼서 만든 콘크리트 교육관, 그리고 업자들에게 육설을 퍼부어가면서 기초를 튼튼하게 했던 사제관과 수녀원 등 장호원 성당의 모든 건물 하나 하나가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들이었다. 성당 구석구석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꿰고 계시면서 장호원 성당의 산증인으로서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분, 나의 아버지 송 주교님이시다.

어느 날 그릇가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스테인리스 밥주발과 쪼대를 꺼내 놓고는 “교구 행사 때 많이 사용하는 성합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쓰는 것이 어떨까?” 하셨다. 그러고는 쪼대 위에 밥주발을 올려서 행사용 스테인리스 성합을 만드셨다. 지금 많은 교구에서 행사용으로 쓰는 스테인리스 성합의 원조가 된 것이다. 그 이후 내가 신부가 될 무렵, 외국에서 값비싸게 들어오는 성작과 성합을 좀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셨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 포도 문양도 새겨 넣고 도금을 하여 제법 품위가 있는 성작과 성합을 만드셨다. 저렴하면서도 손색이 없는 국산품으로는 처음으로 거룩한 그릇을 만드신 것이다. 지금도 우리 교구에서 서품을 받는 신부들이 주교님께로부터 받는 성작이 바로 아버

님의 작품인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제단에서 미사를 봉헌할 아들을 사제로 봉헌하시고, 그 아들이 제단에서 미사를 드릴 때 사용할 그릇까지 만들어 봉헌하신 것이다. 50년간 그릇가게를 이어 오시면서 당신의 신앙과 열정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승화시켜 성작과 성합을 만들어내신 것이다. 이것이 아들을 사제로 봉헌한 아버지의 두 번째 봉헌물인 것이다. 막내아들이 사제로 봉헌되기를 소원하시며 한 평생 오직 그릇가게만 운영하신 아버지는 봉헌된 아들 사제의 손을 통해 당신이 만들어 제단에 봉헌한 성작과 성합으로 당신의 삶을 봉헌하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잔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성작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마도 이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아들의 미사 봉헌에 마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영원히 잔 속에 남아 계시고 싶어 마련 해주신 선물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런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일생을 통해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 어쩌면 아버지는 미사성제에서 사용되는 당신의 성작을 통해 영원히 아들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아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당신의 성작으로 은총의 선물이 세상에 넘쳐흐르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다. 이런 나의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롭다. 아버지는 성작을 만드시고, 나는 그 성작으로 미사를 봉헌한다. 이미 50년 전부터 사제가 될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당신의 소명을 준비하셨고, 결국 하느님께 당신의 그릇을 봉헌하셨으니 아버지 역시 성소자요, 사제이신 것이다.

장호원 그곳에 가면, 당신의 가업을 이어줄 것으로 믿던 둘째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으시고 애비 없는 손주들을 아들 대신 키워내고자 오늘도 여든 노구를 이끌며 힘찬 빗자루 소리로 새벽을 여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 아침이면 묵주기도를 바치며 흔들어대는 수천 번의 털이개질에 당신의 한숨을 감추고 그릇가게를 지켜왔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날 오토바이를 타며 본당 총회장으로 신부님과 함께 공소 구석구석을 누비던 당당하고 활기찬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병약하고, 점점 기억이 사라져 가는 불쌍한 노인만 남아 있을 뿐이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 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생겨난 우울증과 무기력은 아버지의 과거를 차츰차츰 지워가고 있다. 아버지와 병원을 다녀온 어젯밤은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며 밤새 어린 시절을 생각하였다. 오토바이 기름통에 나를 태우고 매일 미사를 다니며 복사를 가르쳐 주어 제단에 서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 송 주교님은 장호원 성당의 역사요, 우리 가족들의 영웅이며, 송 신부의 영원한 자랑이시다. 아버지 힘을 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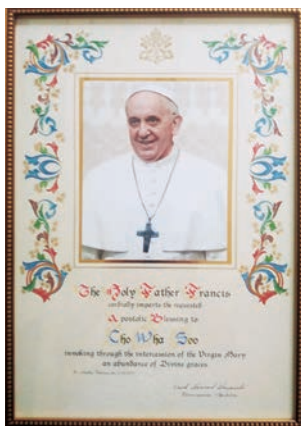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하라고 할 때 해라!



조희수 바오로 /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부회장

나는 1988년 8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성당에서 바오로로 세례를 받았다. 1974년 11월 아내 리타와 대구 삼덕동 성당에서 관면혼배를 받을 때의 약속을 14년 만에야 지킨 늦깎이 신자였다. 그리고 1994년 10월 불광동 성당에서 견진을 받았다.

나는 아내와 만나기 전 감리교 신자였다. 1964년 고교 1학년 시절 YMCA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구 제일감리교회에서 제법 열심히 영어성경 및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다. 그 후 1967년 대학생이 된 후, 혜화동 대학로에 위치한 혜명감리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 그러던 중 1969년 대학 3학년 때 덜컥 청년회 회장으로



▲ 교황님의 축복장

피선되었다. 당시 담임목사는 청년 회장은 당회(우리의 사목회) 멤버가 되며, 반드시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고 하여 준비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최전방에서 생활

하면서 사실상 종교 생활과 멀어졌다. 1973년 6월에 전역한 후, 직장생활을 하며 아내와 선을 보고 1년 정도 교제하다가 1974년 11월 결혼하였다.

그 후 7년여 동안의 홍콩 및 캐나다 토론토 주 재원 생활을 포함하여 1999년 중국 톈진 한인성당 총회장을 맡을 때까지 그냥 성당을 오가는 '발바닥신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다. 톈진 공동체는 예수회 소속의 이인주 베드로 주임신부님과 함께 300여 명의 신자들이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직장관계로 중국 톈진 지점장으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사목총회장으로 봉사해 달라는 신부님의 요청이 있었다. 준비도 없이 중책을 수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좀처럼 아내와 상의하지 않던 나였지만, 그 문제만큼은 아내의 의견을 구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대뜸 "여보, 하라고 할 때 해라!"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로 총회장직을 수락하고, 2002년 상하이로 전근할 때까지 4년여 동안 좌충우돌하며 신나게 봉사하였다. 그렇다! 참으로 오묘했다. 무엇에 홀린 듯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따랐으니 말이다.

2003년에 귀국한 후, 이듬해 12월 만 55세로 정년퇴직하였다. 그 후 나에게 꽤나 달콤한 몇 가지 재취업 오퍼가 있었다. 그때 아내와 상의하면, "당신, 그동안 33여 년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으니 이제 교회봉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는 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는 "그런 좋은 재취업 기회를 살려야지 무슨 봉사활동이냐?"며 강력하게 말리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그때도 나는 용기 있게 아내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2005년 2월 혜화동 소재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리신학과 2년 주간과정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졸업하여 선교사 및 교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 젊지 않은 나이에 쉽지 않은 학교생활이었지만, 공부가 재미있었다. 더욱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나날이었다. 그 기간에 연신내 성당에서 교리교사로 약 4년, 곧이어 사목회 기획분과장과 부회장으로 7년 정도 봉사했다.

특히 2005년 1학년 1학기 방학기간 중에 있었던 전남 영광군 소재 도포 공소에서 체험은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벅찬 감동이었다. 영광 성당 산하 7개 공소 중 하나인 도포 공소는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육지로 나온 분들이 이룩한 특별한 공동체였다. 동료 예비 선교사 2명과 함께 찾아간 그날은 마침 초복이어서 공소 신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고자 모여 있었다. 도착하자 마중 나온 공소 회장이 환영한다며 악수를 청하였다. 이를 어찌나! 얼굴도 홍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분의 손을 잡고 보니 손가락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여졌다. 자리에 앉자마자 환영 술잔을 권해왔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잔을 받고, 같은 잔을 되돌려 권하며 그와 같이 몇 순배 술이 돌았

다. 이 또한 얼마나 오묘한 일이었는지... 그분들과 좋은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환한 표정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은 가히 전율을 느끼게 하였다. 그때의 일은 강력한 신앙생활 체험으로 아직까지도 나에게 크나큰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교리신학원 졸업과 동시에 2010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교리신학원 총동문화 제2기 총동문화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이 역시 아내의 "하라고 할 때 해라!"가 요술방망이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교리신학원 졸업에 이어 2007년 2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입학한 늦깎이 신학도는 2010년 2월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끈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보냈다. 졸업식 당일 신학대학원장 신부께서 총동문화장을 맡아줄 것을 권유하셨다. 이때도 아내의 "하라고 할 때 해라!"는 여지없이 힘을 발휘하였고, 곧바로 회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다. 여기에 이인주 베드로 신부님의 권유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토착화와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참으로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신학대학원 생활 중 2009년 8월 전남 순천시 소재 예수회 수련원에서 가진 9박10일간의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체험 또한 잊을 수 없다. 처음 이삼일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만 했다. 직장생활 등 조직생활에 익숙하기만 했던 나로서는 무엇보다 '절대 침묵'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도저히 적응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성체조배실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혹



▲ 천주교 서울 순례길 선포식

은 그 이상도 잘 견뎌내는 것 같았다. 반면 나는 10분의 짧은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들락날락하였다. 그러는 나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퇴원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 적응하면서 점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힘을 쓰며 마음을 다잡은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퇴원 무렵에는 나 역시 성체조배실에서 한두 시간을 거뜬히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때 전혀 생각하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비롯한 그동안의 생활에서 잘못되고 빠뜨려졌던 기억들이 솟구쳐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눈물범벅이 되어 하느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보았다.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의 감격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뜨겁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서울대교구 봉사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교리신학원 입학 직전인 2004년 3월부터 약 6개월과 정으로 진행된 순교자현양회 성지안내 봉사자 양성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소정의 심화교육을 마치고 성지안내 원로봉사자로 은퇴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나름대로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실로 크나큰 보람과 행복을 만끽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순교자현양회 회장직을 명받

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평협 및 한국평협 시복시성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2018년 2월부터는 부회장으로 힘을 보태게 되었다. 그때마다 “하라고 할 때 해라!”라는 아내의 금과옥조가 예외 없이 적용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돌이켜보면,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모든 일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고만장하였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Yes, I can.’ 등등...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어디에서나 인내를 가지고 잘 경청하는 자세를 일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하느님의 섭리는 얼마나 오묘한지 모른다. 하느님께서 나의 아내를 통해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 “하라고 할 때 해라!”라는 명언을 통해 나의 몫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봉사하라고 하신 듯하다. 한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리라 다짐해본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야기

주보성인과 나

이역만리에서 얻은 세례명, 삶의 기둥이 되어



김지영 이나시오 / 동양대 초빙교수, 전 경향신문 편집인



▲ 클리블랜드 웨스트14번가에 있는 한인천주교회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얻은 일은 일생일대의 전기였다. 그 직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랐다. 영성의 생기가 그러했고, 일상생활이 그러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5년 4월 부활절, 나는 머나먼 미국 클리블랜드 한인성당에서 두 딸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다. 클리블랜드 대학에 1년간 연수를 가기 위해 준비할 때나 미국에 도착해서도 세례를 받으리라는 마음의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일찍이 천주교 재단인 서울 동성중고교에 6년을 다니면서도 세례 권유에는 일언지하에 고개를 저었던 나였다. 그런데 클리블랜드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교민이 갑자기 내 등을

성당 안으로 밀어넣어버렸다. 그는 몇몇 교민을 모아 예비자 교리반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섰다. 나는 “어, 어...” 하면서 떠밀려서는 6개월간 교리반을 다녔다.

길고 추운 클리블랜드의 겨울, 눈은 무릎까지 쌓였다. 저녁의 교리시간에 맞추어 시내의 성당에 가려면 어둠 속에서 눈을 헤치고 1시간가량 차로 달려야 했다. 사제관 지하방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곱은 손을 호호 불었다. 하지만 열심히 다니고 공부했다. 그것만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의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떠밀려서’ 교리공부를 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백척간두에 서있는 듯 불안정하고 방황하던 때였다. 그 교민은 그런 내 마음의 기척을 알아챘지 않았나 싶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기자직은 어릴 때부터 소망한 직업이었지만, 더 미련이 없었다. 일은 매우 힘들었어도 오히려 그럴수록 직업정신을 더 돋우었다. 문제는 인간관계였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좌절감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소소한 것에 내 심적 고민을 털어놓고 가까운 선배와 상의했다. 그러자 그 선배는 나를 다독이면서 “기자직을 그만두진 말고 1년간 해외연수라도 하면서 마



▲ 세례 후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

음을 추스르고 다지는 게 어때?”라고 권유했다. 그리고는 나의 연수를 여러모로 지원했다.

그 이태 전, 나는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을 맡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억울하게 해고됐던 선후배 기자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스스로 감당한 자리였다. 당시 경향신문은 언론업계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자본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회사 형태를 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바꾸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한화 그룹이 적극 인수 작업에 나섰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개입한 것이었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청와대의 ‘내인가’가 필요했던 시절, 정권은 한화와 합작을 하려면 초대 노조 간부 출신 여러 명을 제거하라는 내부 조건을 경향신문에 요구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그 변동의 중

심에 우후죽순처럼 일어서는 노조가 있었다. 특히 정권으로서의 교사노조와 기자노조가 목에 가시처럼 걸렸는데,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량 해고를 자행했다. 그리고 경향신문 합작 과정에 개입해 언론사 손보기에 나섰던 것이다. 진통 끝에 초대노조 간부를 지낸 기자 등 5명의 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됐다. 그리고 한화 그룹은 경향신문을 인수했다.

초대 노조 집행위원이면서도 해고되지 않은 나는 노조위원장이 되어 해고된 선후배들을 위해 복직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너무 외로웠다. “일단 한화와 합작만 하면 동료들의 복직에 앞장서겠다.”며 ‘선 합작 후 복직론’을 내세우던 많은 선후배들이 외면했다. 게다가 일부 선배들은 새 사주 측에 나의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모함하기도 했다. 노조위원장직을 마치고 나서도 나에게 대한 사내 일부 동료들의 모함과 회사 측의 핍박은 계속됐다. (해고된 기자 5명은 얼마 안 가 서울지법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배신감과 좌절의 힘든 터널을 지나면서 영성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던 나. 그러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뜻밖에 만난 주님은 나에게 빛이요, 구원 그 자체였다. 클리블랜드 본당에서는 세례명을 정하는 데 참고하라며 성인집을 한 권 주었다. 나는 성인집을 읽어 내려가다 이냐시오 데 로올라 성인을 접하자마자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대부는 평소 호감을 많이 가졌던 서울신문 기자로, 신학교 출신이자 독실한 구교우 집안 출신인 최홍운 선배로 삼았다. (세례 당일에는 교민 중 한 분이 한국에 있는 최 선배 대신에 임시 대부 역할을 했다.)

당시 내 나이는 만 42세, 이냐시오 성인도 늦은 나이에 신앙인으로 새 삶을 살았다. 군인이었던 그 역시 삶의 현장이었던 전장에서 큰 상처를 입고 나서야 주님을 만난다. 그 뒤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온몸을 바

치겠다고 다짐한다. 33세의 나이에 고등학교 과정을 새로 시작하면서 공부와 영신 수련에 몰두한 그는 결국 가톨릭 개혁 시기에 내부 개혁에 앞장서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 태어난다. 나는 이냐시오 성인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때, 나는 달라져 있었다. 게다가 귀국하자마자 경향신문의 천주교 신자 선배들이 나에게 경향신문 교우회장을 맡으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나는 도망을 다니다 못해 결국 수락하고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생 초짜가 회장이라니…’ 나는 책임감 때문에, 또 뒤늦게 만난 ‘내 사랑’을 망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다. 회사 인사팀에 요청해 80여 명의 천주교 신자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는 1년 내내, 이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교우회 참여를 독려했다. 매일을 하루같이 (성당을 못 가면 매일미사책이나 신앙서적으로) 주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을 숙독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면 꼭 기도책과 신앙서적을 지참해 아침저녁으로 정좌하고 마음에 새겼다. 정동의 경향신문사 옆에 있었던 바로로 팔 서점은 틈만 나면 들르는 영혼의 쉼터였다.

일산에 살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버스와 지하철에서 신앙서적을 보거나 묵주기도를 올렸다. 세례 때 교우로부터 축하성물로 받았던 내 묵주반지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기도를 할 때면 손가락에서 뻗 뒤 반지 전체를 돌려야 했다.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늦은 밤의 버스, 묵주반지를 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줄게 되고 반지를 손에서 놓쳐버리기 일췌였다. 그 바람에 버스 종점까지 간 다음, 버스기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버스 바닥을 수색해 반지를 찾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톨릭언론인회가 주관하는 언론인신앙학교에서 사회교리 강의를 접하고는 ‘번쩍’ 하는 자각

이 들었다. 내 신앙의 요체, 가톨릭언론인으로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확신하게 됐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치는 저널리즘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냐시오 성인의 개혁적 삶을 따르면서 사회교리와 저널리즘으로 나를 닦아 세상에 바치는 것이 내 신앙의 갈 길’이라고 정리했다. 나는 몇 권의 사회교리 책을 신문사 사무실 책상에 두었다. 칼럼을 쓸 때나 논설위원으로서 사설을 쓸 때면 사형제 폐지 등 많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경향신문의 논조에 천주교 사회교리를 많이 반영했다.

그러는 사이에 천주교 울타리 안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도 ‘초짜’를 호출했다. 여러 교회매체에서 출연하거나 기고하라는 주문이 잇따랐고, 나는 거절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이 같은 주문들에 순응했다. 점차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 주교회의 자문위원, 가톨릭신문출판회장, 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직을 잇따라 맡았다. 매일같이 데드라인의 벼랑 끝에서 사투를 벌이는 일간신문사 기자들 중에서도 나는 어찌된 일인지 평생 사회부 사건 팀이나 정치부 정당 팀 등 가장 바쁘다는 보직만 수행했다. 이렇듯 고된 일의 와중에 가톨릭언론인협의회 안팎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결국 잡자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엔 없었다. 그래도 나는 뜨거웠고, 목이 말랐으며, 행복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상하기 어려웠을 기적 같은 일들도 잇따랐다. 평생 ‘예수 꼬랑뎡이’를 싫어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해에 자청해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던 경사, 어머니 영전에서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전하고 많은 수녀님들과 가톨릭 형제들이 기도해주신 일, 형님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던 일… 그리고 고향인 영주 무섬마을의 큰집 현판 ‘해우당’(海愚堂)은 천주교를 탄압한 대표적 인물인 홍선대원군 친필인데,



▲ 세례받은 큰딸 김아람 율리아나와 작은딸 김아리 클라라

가톨릭언론인 형제 60여 명과 함께 그 현판 아래에서 시대의 화해를 기도하며 힘차게 성가를 부르고 미사를 올렸던 감격, 연례 한일 천주교 주교 모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미디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던 일 등...

그중에서도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천주교 용어 자료집》을 펴낸 것은 이나시오 성인의 개혁적 삶을 따르려는 나에게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 2005년 4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하자 신문·방송 등 국내 매체들은 장례기간에 매일처럼 엄청난 양의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그러나 각 매체들이 용어들을 저마다 다르게 번역함으로써 혼란이 생겼다. 나는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였던 김민수 신부님에게 건의했다. “미디어 종사자 중 비신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집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김 신부님, 서울신문에서 주필과 편집국장을 각각 역임한 임영숙·

최홍운 선배, 매스컴위원회 이진아 간사와 함께 근 1년 동안 작업을 했다. 명동성당의 구석방을 하나 얻어 그 해의 많은 일요일은 탄 일을 제쳐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수시로 감기에 걸려가면서 ‘사서 하는 고생’이요 전적인 봉사였다.

우리는 우리말 위주의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고 편찬의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만 수십개가 넘었다. 용어집 뒤쪽에는 천주교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기 쉽게 글과 도표, 그림으로 꾸민 부록편을 붙였다. 원고는 주교회의 용어위원회의 감수와 전체회의 심의, 그리고 오랜 숙고를 거쳐 2011년 출간, 전국 여러 매체와 가톨릭 서점에 배포됐다. 용어집은 휴대하기 쉬운 46판 작은 크기에 스프링 철로 제본했는데, 매체들은 물론 일반 신자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나시오 데 로올라 수호성인의 삶을 따라 작은 개혁을 실천하자는 바람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나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의 이콘이 있다



송석철 임마누엘 / 종교학박사, 이콘작가

성 미카엘 대천사(St. Michael)와 만딜리온(Mandylion)

아주 오래전 짧고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처음 본 이콘은 빛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강렬한 초대였다. 훗날 이 이콘은 성 미카엘 대천사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만남은 나를 현재의 이콘 작가로 이끌었다. 이렇게 이콘을 알게 된 후, 나는 독일의 레클링하우젠 이콘 박물관에서 다시 한 번 특별한 이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얼굴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던 ‘만딜리온(Mandylion)’이었다. 이것은 ‘아케이로포이에토스(Acheiropoietos)’라고도 불리는데, ‘손으로 만들지 않은’이라는 의미이다. 이 이콘에 대해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문둥병에 걸린 에데사의 왕 아브가르는 문서고 책임자이자 화가인 하난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다. 만약 예수께서 오시기를 거절한다면, 초상화를 그려서 가져오라고 한다. 하난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너무나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난은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하는 하난을 보시고 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다. 그리고는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러자 수건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 예수께서는 하난에게 그 수건과 편지를 왕에게 보내셨다.’



▲ 미카엘 대천사, 30×60cm, 송석철 임마누엘, 2018.



▲ 만딜리온, 러시아 화가, 1525~1550년 경, 나무에 에그템페라, 71×58cm, 레클링하우스엔 이콘 박물관

사실 독일에서는 무심코 지나쳤던 이콘이었다. 그런데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어느 날 밤, 버스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던 내게 창밖 어둠 속 으로부터 거대하게 다가오던 예수님의 얼굴, 만딜리온이었다. 놀라웠다. 그 모습은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고 남아있다.

문을 지키는 성모 마리아(Panagia Portaitissa)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고요한 곳에 머물러라’. 그리스 성산(聖山) 아토스(Mount Athos)는 그렇게 ‘고요한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통 비잔틴 이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토스 산은 자연과 결합된 20개의 수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400년경에는 40여 개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한다. 3세기부터 수도사들이 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8세 이상의 남성들만이 수사 또는 노동자로 사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여성과 암컷 동물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또한 일반 남성도 방문은 제한적이어서 특별 허가증 발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전승

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라자로를 만나기 위해 키프로스로 향해 하다 항로를 잃고 도착한 곳이 이비론 수도원 근처였다. 아토스 산의 아름다움에 성모 마리아는 감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훗날 아토스 산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어 ‘성모 마리아의 정원’이라고도 불린다. 수도원으로만 이루어진 곳답게 아토스 산에는 수많은 이콘과 그리스도교 고문서들이



▲ 파나기아 포르타이티싸, 137×94cm, 아토스 산, 이비론 수도원



▲ 파나기아 포르타이티싸, 30×40cm, 송석철 임마누엘, 2012

보관되어 있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산실이다.

나는 이비론 수도원에 머물며, 수사님들에게 비잔틴 정통 이콘을 사사했다. ‘파나기아 포르타이티싸(Panagia Portaitissa)’는 이때 처음

접한 이콘이었다. ‘문을 지키는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의 포르타이티싸는 다른 이콘에 비해 유난히 크고 슬픈 눈, 그리고 턱에 흉터가 있고 피가 흐르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얼굴을 제외한 전체가 금과 은으로 덮여 있다. 이 이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유명해서 많은 순례객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표시로 그 앞에 각종 귀금속을 걸어 놓기도 한다. 포르타이티싸의 기적에 대한 전승은 다음과 같다.

‘이콘 파괴가 있던 시기, 니케아의 독실한 한 미망인의 이콘도 파괴의 위기에 처했다. 한 병사가 창으로 이콘을 찔렀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흘러 내렸다. 놀란 병사들은 즉시 회개하고 수도원에 입회하였다고 한다. 미망인은 더 이상의 이콘 손상을 막기 위해 기도를 드린 후 바다에 넣었다. 그러나 이콘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똑바로 서서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몇 년 후, 이콘은 아토스 앞 바다에 나타났다. 그즈음 아토스의 수도사 가브리엘은 환상 중에 마리아로부터 물 위에서 그 이콘을 손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수도사들은 불기둥이 바다에 똑바로 서서 하늘에 닿아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가브리엘은 물 위를 걸어가 이콘을 들고

수도원 제단에 놓았다. 그러나 이콘은 반복적으로 사라졌으며, 그때마다 수도원의 문 안쪽에서 발견되었다. 가브리엘 수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선택한 곳’, ‘수도원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 오늘날은 그 이콘이 있던 수도원 벽 근처에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소성당을 짓고, 그 안에 이콘을 모셔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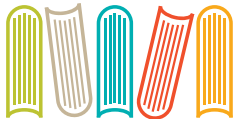


▲ 이비론에서

수도원에서 나는 수사님들과 똑같은 일상을 하였다. 기도하고 일하고, 이콘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상. 새벽 3시에 일어나 혼자 기도하고, 해뜰 무렵에 조과(朝課), 6시 일시과(一時課)를 마친 후 8시쯤에는 산을 넘어 니콜라스 켈리(이콘 제작실)로 향했다. 켈리로 가는 길은 깊은 숲속이어서 많은 나무와 새들, 그리고 바람과의 대화가 나의 영혼을 살찌웠다. 발 아래로 이비론 수도원이 내려다보일 즈음이면, 나를 품어준 이비론 식구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한다. 한 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걷다 보면 켈리에 도착한다. 켈리에서 완성한 포르타이티싸 성모님의 상처는 나에게도 아픔으로 다가왔다. 꼭 그렇게 이콘을 파괴했어야 했을까. 온전히 기도로 그려진 이콘, 오로지 하느님을 닮고자 고행했던 이들의 수고가 성모님의 상처를 통해 내 손 끝에 전해져 왔다. 〰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오스카 로메로

케빈 클라크 지음 / 강대인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40x205 / 256쪽 / 14,000원

로메로 대주교의 시성식이 지난 2018년 10월 14일에 거행됐다. 이 책은 엘살바도르의 참혹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서 로메로 대주교가 자신의 삶으로써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엘살바도르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돼 있었다. 당시 로메로는 사목적인 중재 입장을 취하고 정치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제들을 비판하던 보수적인 성직자였다. 그랬던 그가 점점 더 참혹해지는 민중의 고통을 깨달았고, 절친한 사제가 비참한 죽음을 맞자 이를 계기로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는 민중을 위한 용기 있는 변호자가 되었고, 결국 반대자들의 총탄에 순교하기에 이르렀다.



돈 까밀로
러시아 가다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 이승수 옮김 / 서교출판사 / 140x260 / 250쪽 / 12,900원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전10권) 시리즈의 완결판. 돈 까밀로 신부는 지금껏 배경이 됐던 이탈리아 작은 마을 바짜를 떠나 러시아로 뻘뻘네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돈 까밀로는 그곳에서 좌충우돌 사건을 벌이고 기지를 발휘해 공산당원들을 교화시키고 탈당하도록 이끈다. 특히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숨어살던 신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하고 가톨릭 공동체를 재건하며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준다. 감동과 평화가 넘치는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영혼이 담긴 소설로 원제는 'Il Compagno Don Camillo'(1963년).



삶을
놓치지 마라

안셀름 그륀 지음 / 황미하 옮김 / 분도출판사 / 140x200 / 200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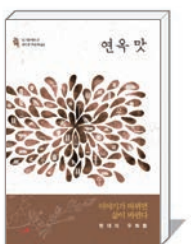
불확실한 세상 앞에 겁을 먹고 주저하는 청년들, 많은 것을 이뤘지만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중년들, 늘 순응만 했을 뿐 삶을 헛살았다며 한숨짓는 노년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삶을 놓치고 마는 내적 태도를 살펴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안전장치만 마련하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고, 또 자신의 주위만 맴도는 나르시시즘도 문제이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서 답을 찾는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자신의 삶에 뛰어 들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객으로 머무르지 말 것, 직접 나서서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주님의 기도
바로 알기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 김혁태 옮김 / 148x210 / 192쪽 / 13,000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배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님의 기도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잊은 채 무미건조하게 혹은 반사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곤 한다. 나아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맞추어 주님의 기도를 왜곡시키고 변형시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치기까지 한다. 이 책은 현 시대에 바쳐지는 변형되고 왜곡된 주님의 기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주님의 기도에 내재된 참된 신학적 의미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연옥 맛

닐 기유메트 지음 / 김미경, 박웅희 옮김 / 성바오로 / 148x210 / 232쪽 / 15,000원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면서 우리는 자신 안에 신념이라는 틀을 만든다. 이 틀로 어떤 것은 확대 재생산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집하며 선택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하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뒤로 숨거나 자신 안에 구겨 넣어 버린다.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신 안에 단단히 각진 채 숨어 있는 그 틀을 깨며 우리가 앞으로 써 내려갈 삶의 이야기들이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이 가득한 빛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탄이 왔다

안드레아 슈바르츠 지음 / 황미하 옮김 / 바오로딸 / 128x188 / 234쪽 / 10,000원

대림과 성탄 시기를 맞아 말구유라는 초라한 환경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하느님 육화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안내서. 저자는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과 자신의 체험, 영성을 토대로 주제를 진솔하게 풀어내면서 깊은 울림을 준다. 또한 믿음과 일상의 삶을 긴밀히 연결하도록 이끌면서 우리의 시야와 사고의 지평도 넓혀준다. 영적 지도자, 대림과 성탄 시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이, 내면에 충실히 임하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서이다.



명심보감, 그리고
하느님이 이끄기를

추적 지음 / 임덕일 엮음 / 으뜸사랑 / 154x224 / 348쪽 / 15,000원

《명심보감》은 선현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훌륭한 가르침들을 거울에 비유하여 쓴 교훈서이다. 엮은이는 이 책을 통해 선현들의 철학과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명심보감의 내용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또한 코린토 1서 13장의 주요 내용인 섬김과 나눔, 친교라는 세 갈래로 간추렸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8년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가 9월 14~15일 경기도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7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하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개막미사를 주례한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복讎 신자들과 복讎 순교자들이 흘린 고귀한 피를 기억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의정부교구 이은형 신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신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 기도 운동 전개 △ 평화 교육 △ 인도적 나눔 운동 △ 북한 천주교회와의 신앙 교류 △ 북한 복음화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평협 이창훈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의 ‘교회 밖에서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 파견미사에서 이재화 신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동반자가 되어 힘이 되어주고, 십이 되어주며 하느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남북출입사무소와 도라산 전망대, DMZ 방문을 끝으로 연수회를 마무리했다.

● 2018년 한국평협 추계 상임위원회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2~3일 부산교구 은혜의 집 피정센터에서 교구 평협 및 회원 단체 대표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8년 추계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막미사는 손삼석 주교(부산교구 교구장 서리)가 집전했다. 손 주교는 강론에서 “위령성월을 맞아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자. 그분들의 삶

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보는 은총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령성월에 묵상할 만한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해와 그 준비’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다. 강의를 맡은 손삼석 주교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종말인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한 일치를 이루는 완성’임을 강조했다.

첫째 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교구 평협 및 회원 단체의 2019년 사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날 16개 교구 중 14개 교구 대표가 참가하여 각 교구의 실적과 교구장 사목교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상임 단체의 대표들은 단체를 소개하고, 단체의 활동목표에 따른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둘째 날은 2019년 한국평협 사업계획안 검토 및 토의가 진행됐다. 한국평협은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를 2019년 활동지표로 삼았다. 특히 희년은 마무리되었지만, 희년의 정신을 삶에서 더욱 구체화하며 살려는 노력을 다짐하며 △ 미사의 힘으로 사도직 활동 △ 성경을 나침반으로 말씀을 실천 △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분열의 아픔이라는 활동 실천방향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한국평협의 2019년 신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기존 사업을 검토하고, 한국평협 발전을 위한 의견도 나누었다.

둘째 날 특강에서 이장환 신부(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는 ‘인간학적 관점으로 본 복음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이 신부는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음의 인간학적인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수님은 복음 속 말씀과 행적, 인간적 방식, 경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신부는 강의 후 이어진 파견미사 강론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 낮은 자세로 봉사직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2018년 우리성가 공모 ·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독후감 공모 시상미사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15일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 대성당에서 2018년 우리성가 공모 및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독후감 공모 시상미사를 봉헌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제11회 노랫말 공모와 하반기에 진행된 제12회 작곡 공모에는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되었다. 한국평협의 신호철 문화예술위원장은 “이번 공모에 좋은 곡들이 많이 출품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출품해주신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전하며, 더 아름다운 노랫말과 음악으로 주님을 찬미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평신도 희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독후감 공모에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가작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김문태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모든 응모자가 수상 대상자였고, 후세가 본받을 만한 오늘의 평신도 신앙인”이라며, 독후감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상미사를 집전한 손희송 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는 “한국평협에서 매해 진행되는 공모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께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를 보냈다.

• 수상자 명단

제11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수상	이름	세례명	소속
최우수상	김미숙	안나	전주교구 송천동성당
우수상	고경자	아녜스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
우수상	임수연	리타	대전교구 세종성프란치스코성당
장려상	이선영	가브리엘라	서울대교구 역삼동성당
장려상	전수진	아녜스	서울대교구 수궁동성당
장려상	한은비	레아	서울대교구 방배동성당

제12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수상	이름	세례명	소속
최우수상	전수진	아녜스	서울대교구 수궁동성당
우수상	임수연	리타	대전교구 세종성프란치스코성당
우수상	정희선	도미니카	서울대교구 잠원동성당
장려상	강동윤	아가다	수원교구 죽전1동 하늘의문성당
장려상	김태현	소피아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
장려상	유일영	클로틸다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

한국 평신도 회년 기념 독후감 공모

수상	이름	세례명	소속
최우수상	김태홍	대건 안드레아	광주대교구 남동성당
우수상	박선영	에텔지타	서울대교구 가양동성당
우수상	송동현	바오로	대구대교구 도원성당
우수상	지용준	요셉	인천교구 선학동성당
가작	구선영	엘리사벳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
가작	김대용	힐라리오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가작	송채호	안드레아	수원교구 모현성당
가작	정신혜	베르디아나	대구대교구 복현성당
가작	좌영희	아델라	대구대교구 불로성당
가작	황숙희	로사	전주교구 모현동성당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회년의 기쁨’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선 공연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가 ‘한국 평신도 회년’ 자선공연을 열었다.

지난 11월 6일 명동대성당 문화관 고스트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서울평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해 선포된 ‘한국 평신도 회년’의 기쁨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려는 취지로 준비되었다.

듀오 메타노이아(김정식 로제리오, 송봉섭 요한)와 성악가 박보미(가타리나) 씨가 무대를 장식한 1부 힐링 콘서트는 공연장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이어 2부 공연으로 서울가톨릭연구협회의 〈빛으로 나아가다〉 연극이 펼쳐졌다. 〈빛으로 나아가다〉는 한국평협에서 20세기의 모범적인 평신도 다섯 명의 이야기를 엮어 발행한 『불꽃이 향기가 되어』 속 ‘김익진 프란치스코’ 선생의 생애 이야기(원작 김문태)를 각색한 연극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따라 살고자 노

력하고, 가톨릭 신앙의 토착화를 위해 애써온 김익진 선생의 삶에 관객들은 큰 감동을 표현했다.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자선 공연에는 1,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서울평협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회년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었다.

• 서울대교구 ‘한국 평신도 회년’ 폐막 감사 미사 봉헌



서울평협은 지난 11월 11일(제51회 평신도 주일) 명동대성당에서 ‘한국 평신도 회년’ 폐막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집전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한 해 동안 회년의 정신에 따라 감사와 기쁨과 나눔의 삶을 살아오신 평신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종종 나약함 때문에 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제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미사 중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교회의 주체로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인으로서 참신앙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어 복음화의 길을 앞장설 것을 선언하는 ‘평신도 선언문’ 낭독 및 봉헌이 있었다. 또한 한국평협 50주년을 맞이하여 편찬한 『한국평협 50년사』도 함께 봉정되었다.

또한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맞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평신도에게 표창을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40년 동안 소외된 여성들의 기초학습과 평생교육을 위해 힘써온 한국여성생활연구회장 정찬남 씨가 표창을 받았다. 단체 부문 표창은 전국 산간벽지와 섬에 산재한 630여 개의 한국교회 공소를 찾아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공소집을 발간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가 수여 받았다.

‘한국 평신도 회년’은 폐막 감사 미사를 끝으로 공식 종료되었지만, 신자들은 회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며 기쁨의 해를 마무리하였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0회 38선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종명, 담당사제 김혜중)는 지난 10월 9일 양양성당 일원에서 제10회 38선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 행사를 하고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의 희생과 돌봄을 묵상했다.

티모테오 순례길은 양양본당 제3대 주임 고(故) 이광재(1909~1950년) 신부를 기리는 길로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신앙과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은 북한 신자들이 실제로 걸었던 길이다.

북한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북한으로 떠난 이 신부는 1950년 6월 24일 북한군에 잡혀 원산 와우동 형무소에 수감됐고, 그해 10월 8일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이튿날인 10월 9일 세상을 떠났다. 이날 도보순례에 참가한 교구 사제 및 신자, 수도자 등 1,200여 명은 양양성당을 출발해 부소치재까지 12km를 함께 걸으며 이광재 신부를 추모했다.

순례 중에 '영적 물 한잔 떠드리기'를 통해 기도 지향을 뽑아 서로를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바쳤고, '오늘 희생할 희생은 ()이다'라는 책갈피로 신부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희생과 돌봄'을 생각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춘천평협은 이광재 신부의 삶을 기리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38선 티모테오 길'로 명명하고, 2009년부터 매년 이 신부가 순교한 10월 9일에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 평신도 회년 폐막 감사미사



11월 11일 죽림동 주교좌성당에서 춘천교구 평신도 회년 폐막 감사미사가 있었다. 감사미사는 교구장 김

운회 주교의 주례로 12명의 춘천교구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하였고,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미사에서는 신자들이 평신도 회년을 지내며 실천한 사항들을 기록한 평신도 회년 수첩을 봉헌하였고, 평신도 회년 활동 경과를 나누었다. 야외에는 우수 실천 사례도 전시하였다.

평신도 주일이었던 이날 미사에서는 강론을 대신해 3명의 평신도 대표가 평신도 회년을 보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운회 주교는 평신도 회년을 모범적으로 보낸 76명의 신자에게 축복장을 수여하였다.

김 주교는 "지난 1년의 시간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 굳세어지게 하고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평신도 회년을 훌륭히 지낸 신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론을 대신해 발표한 평신도들은 지나온 평신도 회년이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설렘 가득한 순간들이었다."라고 말하며 성지순례와 전대사 양도, 성경 읽기·쓰기를 통해 하느님 말씀에 머물기, 예비자 방문 및 봉헌 등 평신도 회년 동안 실천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늘 감사하는 삶을 다짐했다.

춘천평협은 평신도 회년을 시작하며,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십자성호 굿기', '선교 활동 실천하기' 등의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 실천사항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평신도 회년 수첩>을 제작하여 신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더불어 교구장의 사목교서인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제에 맞춰 '찾아가는 지구별 평신도 회년 특강'을 실시하는 등 춘천교구 신자들이 평신도 회년을 더욱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8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사

제 김민희, 이하 대전평협)는 10월 23일 탄방동성당에서 '2018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기기증자와 생명 나눔에 관심 있는 교구 신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총대리 김종수 주교 주례의 생명수호미사 봉헌과 생명나눔음악회 등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생명나눔음악회에는 황영준 신부(덕명동본당 주임)와 소프라노 구은경(루치아), 테너 김정규가 출연해 생활성가와 가곡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은 생명수호미사 봉헌과 생명나눔음악회를 통하여 기증자들의 장기기증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 본당방문 생명캠페인

대전평협은 11월 11일 당진 수청성당에서 250명의 신자와 함께 '본당방문 생명캠페인'을 개최했다. 주일교중미사에서 황관옥 생명분과장의 '그리스도인의 생명나눔' 강의가 있었고, 미사 후에는 20명의 장기기증 희망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이번 행사는 본당 신자들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수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평신도 회년 기념미사 및 음악회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동빈, 담당사제 이용권)는 지난 11월 10일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인천교구 평신도 회년 기념미사 및 음악회'를 주최했다. 이 행사는 1968년 창립된 한국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마무리하는 11월의 평신도 주간에 열렸다.

교구 본당 회장단 및 교구 단체장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행사의 1부에서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의 주례 및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기념미사가 봉헌됐다. 2부에는 인천예술인총연합회장이며 관악단 상임지휘자 이종권 씨의 인천 웨스트우드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고, 솔리스트 색소폰 조세형, 바리톤 권영만, 소프라노 신현선이 가곡 및 뮤지컬 주제를 불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8 하반기 총회장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수원평협)는 10월 20일 교구청 지하 강당에서 본당 총회장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하반기 총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제23대 교구 평협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교구 사무처장 양태영 신부가 '하느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자세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봉사'에 대하여 제1강의를 했다. 제2강의는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이근덕 신부가 '수원교구 본당 사목방문 안내서'를 주제로 강의했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미사를 마치면서 이 주교는 전임 평협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임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2018 하반기 총회장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야외 연수



수원평협은 11월 10일 대부도에서 영성지도 신부와

상임위원 및 임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외 연수를 시행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조직의 결속을 위해 산행과 유리섬을 관람하며 친교를 돈독히 하였고, 많은 대화를 통해 앞으로 평협이 교구와 교구민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8년 하계연수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지도신부 배도하, 이하 원주평협)는 9월 8~9일 양일간 강릉에 위치한 녹색도시체험관에서 하계 임원 연수회를 가졌다.

매년 정기 행사인 원주평협 연수회에서 지도신부와 임원 그리고 각 단체장 30여 명이 모여 원주평협의 발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구체적 활동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원주평협 50주년을 맞아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원주평협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구순례길 조성, 교구본당 방문하기, 평신도 주관으로 신앙대회 개최, 평신도 활동사진집 발행, 청소년 연계행사 등 많은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교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도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성공적인 하계 연수를 치하하고, 협의된 의견을 실천하는 원주평협이 되기를 바라며 50주년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마감하며 원주교구 '도보순례길 걷기'



원주평협은 한국 평신도 회년 폐막을 앞두고 11월 10일 용소막성당에서 배론성지까지 순례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조규만 주교를 선두로 본당사도회 임원들과 교구평협 임원 및 단체장 130여 명이 함께했다.

목주기도를 시작으로 순교자 남상교 유택지(학산묘재)를 지나 배론성지 가경자 최양업(토마스) 묘소를 참배하고 한국평협 50주년 회년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배도하 지도신부는 폐막미사 강론에서 "한국 평신도 50주년을 마감하며 걷는 순례길이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원주평협의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순례길 걷기 행사가 정례화되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당부했다.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0주년 회년선포식

11월 11일에 원주교구 주교좌 원동성당에서 원주평협 50주년을 기념하는 회년 선포식과 평신도 실천다짐문 봉헌식이 있었다.

원주평협 다짐문에는 '기도하는 평신도, 실천하는 평신도, 하나 되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가정을 위한 기도 및 쉬는 교우 함께하기, 대부모, 대자녀 찾아보기 등 10가지 실천방안이 포함되었다.

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강론에서 "한국평협 50주년은 지나갔지만, 이제 원주평협 50주년이 시작된다. 한

국교회는 한국의 평신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후손인 우리도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포식이 끝난 후 원주평협은 임원들과 교구장 및 담당 신부들과 함께 오찬 행사를 했다. 원주평협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많은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기념사업 성공을 위한 건배가 이어졌다.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무료급식소 봉사

원주평협은 지난 11월 18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교구장 조규만 주교를 모시고 원주시 원일로 무료급식소 십시일반(원장 이상길)에서 점심 배식봉사와 동절기 점퍼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했다.

가톨릭사회복지법인 갈거리사랑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노숙인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다. 크지는 않지만 하루 300여 식을 제공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120여 명의 식사를 나누고 있다.

복음화사목국(배도하 신부)을 중심으로 평협과 여성

연합회(회장 송혜경)가 계획하고 준비한 이날 행사에서는 임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조규만 주교가 직접 배식을 하였다. 조 주교는 식사에 참석한 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위로와 축복을 전했다. 평협과 여성 연합회는 설거지와 청소 정리까지 함께하며 봉사의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앞서 교구장은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다. 누구든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묵상을 부탁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성지순례

대구평신도위원회 위원들과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 상임위원들이 조환길 대주교와 조현권 신부를 모시고 지난 8월 26일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전주 전동성당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먼저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안내로 전주교구청을 둘러본 후, 전주평협 한병성 회장 외 임원단의 환

대를 받으며 치명자산으로 이동하였다. 치명자산성지에서는 국악뮤지컬 성극 <임이시여 사랑이시여>를 관람하였다. 이후 치명자산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전동성당으로 이동하여 간단한 기도를 끝으로 성지순례 일정을 마쳤다.



● 교구 도보성지순례 주관



대구평단협은 지난 9월 29일 교구 도보성지순례를 주관하였다. 올해 도보성지순례는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었는데 비산성당, 복자성당, 범어성당, 월성성당, 관덕정순교기념관, 계산성당에서 각각 출발하여 성모당으로 집결하였다. 이날 2,900여 명의 신자들이 참가하여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기념하고 순교자 현양미사를 함께 봉헌하였다.

● 교구장기대회(테니스, 배드민턴) 개최

지난 10월 9일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와 배드민턴 대회가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교정과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 300여 명이 각각 모여 잔치를 벌였다. 배드민턴 대회의 경우 2회째인데 배드민턴 인

구가 많기도 하여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대회로 내년 3회 때는 참가자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테니스는 43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서 참가팀 수에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지만 서로 친목 도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성모당 봉헌 100주년 감사미사 봉헌

지난 10월 13일 성모당 봉헌 10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대구대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드망즈 주교의 고향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교구의 뤽 라벨 대주교와 김보록 로베르 계산성당 초대 주임신부의 고향인 벨포르-몽벨리아흐교구의 도미닉 블랑셰 주교를 초청하였고, 4,000여 명의 신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지난 2월부터 교구민들이 마음을 다해 봉헌한 4,673만 8,520단의 묵주기도 족자를 신자들을 대표하여 이동구(마티아) 총회장이 조환길 대주교께 드렸다.



● 교구평단협 정기총회

교구평단협은 지난 10월 27일 대구교구청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리였다. 2018년 평신

도 회년과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의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권고했으며, 아울러 2019년 교구장님 사목 교서인 '용서와 화해의 해'를 잘 보내기 위해 냉담 교우 회도와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기로 하였다.



●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

지난 11월 10일에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를 봉헌하였다. 본당의 평신도 대표(총회장, 평단협회장, 사목위원 등) 300여 명을 미사에 초대하여 함께 평신도 회년 폐막을 맞으며 평신도로서 평신도답게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지도 손삼석 주교, 회장 도용희, 이하 부산평협)는 지난 9월 29일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기념 도보순례로 삼랑진에 있는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 성지를 300여 명의 부산교구민들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21일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미사 후 실시 예정이었으나, 유례 없는 폭염으로 취소되

어 이번에 진행하였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1단 목주를 각 1개씩 나누어 기쁨을 같이하였다.



● 부산평협 평신도 회년 평가회 겸 간담회 개최

부산평협은 평신도주일인 11월 11일 지난 20년간 부산평협을 이끌어온 전임회장단(교문 및 자문위원단) 12명과 담당 손삼석 주교, 축일을 맞은 부담당 선교사목국장 이장환 신부와 함께 평신도회년 평가회 겸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교구장서리 손삼석 주교는 내년은 새로운 5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원년인 만큼 교구 사목자와 평협 임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계승하여 사목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사목을 지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앙에 3덕의 정신 중 올하는 '희망의 해'로 정했으니 가정과 본당공동체 내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협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용희 부산평협 회장은 교구장의 사목지침을 충실히 받들고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며 화기에애한 친교의 자리로 마감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신도회년 폐막미사 및 환경특강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한일문)는 11월 10일 가톨릭교육관에서 각 본당 회장단, 단체장, 평협위원 1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교구장 주교 주례로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강론을 통해 평신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보편적 사제임을 강조하고, 18년간 평협 위원으로 활동해 온 안상덕(다니엘) 전임 회장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미사 후에는 총대리 신부의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중심으로 한 환경특강이 있었다. 특강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였고, '마침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음 회년을 향해 나아가는 평신도들이 되기로 다짐하였다.



● 2018 리뉴(Renew) 창작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

마산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기획한 2018 리뉴(Renew) 창작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 (주최: 마산교구, 주관: 교구평협) 공연을 11월 17일 경남 MBC 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마산교구에서는 사랑실천과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순교자의 딸 유섬이' 뮤지컬을 새로이 리뉴(Renew)하였다. 어렵고 외로운 소외계층과 예비자를 초청하여 2회 공연에 2,000여 명의 관객들이 관람하였고, 작년 초연 때보다 등장인물들이 극 중 겪는 갈

등을 더 깊이 있게 살려내어 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있었다.



유섬이는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의 딸로서 9살의 나이로 거제도 관비로 유배된 후 71세까지 동정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았다. 유섬이의 삶은 '한국 평신도 회년'을 사는 평신도에게 참 신앙과 삶의 커다란 깨달음을 전해준다.

유섬이는 25년을 토굴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고 20년을 양모에게 지극한 병간호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된 진정한 평신도의 이웃이며 빛이다.

마산교구 평협이 주도하여 제작한 창작뮤지컬 '순교자의 딸 유섬이'가 앞으로 전 교구 공연을 목표로 가톨릭신자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4차 교구장배 게이트볼대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지난 10월 9일 안동시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180여 명의 교우와 함께 제14회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다. 6개 지구 13팀이 참가하여 친선 게임을 통한 친교를 나누었으며 상주지구 모전동 성당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 상임위원 피정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29~30일 안동시 도산면 소목화당에서 평신도 회년과 본당쇄신의 해를 보내면서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6개 지구 중 상주지구와 의성지구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아 안동교구 평신도의 다짐 실천사항 다섯 가지 초안을 만들었으며 11월 11일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에 정리한 내용을 권혁기 평협 회장이 낭독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와 순교자현양회는 9월 29일 “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시편 22,5)라는 주제로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목포가톨릭대학교를 시작으로 옥암동성당과 남농기념관, 목포가톨릭성지,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까지 12.5km를 걸으며 순교 성인들의 삶을 묵상했다.

옥현진 총대리주교는 교구 사제, 수도자, 신자 1,200여 명이 함께한 도보성지순례를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목포 산정동본당의 안 브렌난 몬시뇰과 토마스 쿠삭 신부, 오브라이언 신부 등 세 분의 신부님이 6·25 한국전쟁 당시 신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교구청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 끌려가 핍박을 받다 대전에서 순교하셨다”면서 “목자들이 신자들을, 양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 4층 옥상에서 봉헌한 순교자 현양미사는 목포시내 일원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으며, 미사 후 옥현진 주교는 힘든 도보순례길에 함께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안수를 해주어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한국 평신도 회년을 보내며 이날 도보순례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전대사의 은총과 함께 교구장 대주교 명익의 ‘도보순례 완주증’이 주어졌다.

● ‘평신도 봉사자의 날’ 초대

광주평협은 10월 21일 한국 평신도 회년을 보내며 그동안의 봉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목국이 기획한 ‘평신도 봉사자의 날’에 초대받았다. 이 초대의 날은 사목국 회의 중에 나온 의견으로 평신도 회년을 보내면서 사목국 관련 봉사 단체 임원들을 모두 초대하여 그 노

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뜻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먼저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친교 행사의 막을 여는 무대에서 사목국 신부님, 수녀님, 직원들이 파격적인 깜짝 댄스를 선보여 모두의 박장대소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사목국과 단체들의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고 평협 여성임원들의 장기자랑과 가톨릭합창단의 노래가 이어졌다. 특히 저녁 만찬 시간에는 신부님, 수녀님, 직원들이 깔끔한 서빙 복장을 갖춰 입고 초대받은 봉사자들을 최고의 품격으로 대접하여 초대의 날이 최고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 2019년 사목교서 직무연수



광주평협은 교구장 사목중점사항이 본당과 지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지구별로 본당 사목협의회의와 교구제 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목교서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직무연수는 ‘교구장 사목중점사항: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김정용 신부(사목국장)의 특강으로 처음 시작되며, ‘교구장 사목중점사항: 쉬는 교우를 위한 사목(사례)’라는 주제의 박성열 신부(완도

성당 주임)의 특강이 진행된다.

지구/단체명	일 시	장 소
목포무안, 신안	11. 3(토) 13:30~16:00	경동성당
나주함평	11. 11(주일) 13:30~16:40	함평하상성당(문장)
광주서부, 광산1,2 교구 제단체	11. 17(토) 13:30~16:00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순천	11. 18(주일) 13:30~16:40	조곡동성당
중남부	11. 24(토) 13:30~16:00	소록도성당
광주동부, 남부, 북부1, 2 교구 제단체	11. 25(주일) 13:30~16:40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서남부	12. 1(토) 13:30~16:00	해남성당
여수	12. 2(주일) 13:30~16:40	문수동성당

● ‘한국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



광주평협은 지난해 평신도 주일부터 한 해 동안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는 주제로 평신도

회년을 보내고, 평신도 주일인 11월 11일 임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김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회, 순교 정신으로 성장한 교회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평화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순교 정신으로 다져진 신앙을 소중히 유산으로 전해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로써 공식적으로 평신도 회년은 끝나지만 회년의 정신, 곧 그동안 다짐했던 평신도 영성운동은 더욱 구체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이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성체 예식 이후에는 신동열 회장을 대표로 신자들과 함께 ‘평신도 회년’을 보내고 회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평신도 회년을 맞아 고흥본당과 녹동본당, 도화본당, 대덕본당, 벌교본당, 보성본당, 소록도본당, 장흥본당 등 광주대교구 중남부지구 소속 본당 신자들이 ‘한끼 100원 운동’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통일기금’ 1천 270여만 원을 중남부지구 평협 이병제(아벨)회장이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전달해 회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주교구 평단협 추계 회원연수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병성, 이하 평단협)는 9월 29일 교구청사 대강당에서 본당사목회장단과 평단협 임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회원연수를 개최하였다.

첫 순서로 천호성지를 관리하는 김영수 신부가 ‘순교영성의 현대적 해석과 전달’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신부는 특강에서 순교자의 고장 전주교구의 후예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특히 성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순례를 일상화하며 세속의 일상적 삶과 확연히 분리되는 참 신앙인의 실천적 자세를 확립하고자 강조하였다.



이어서 평화의 전당사업 담당 길성한 신부가 '신앙인의 생태적 회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가톨릭 신자의 자세를 신앙적 차원에서 역설하였다. 강의 후에는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충격적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선포식을 거행하고 각 본당에 동영상 자료와 관련 리플릿을 일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교구 교우들이 환경보호 실천운동에 동참하도록 계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회년을 세 달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작년 11월 평신도 회년 선포 이후에 전주교구 평신도들의 신앙적 삶을 돌아보고 자성하였다. 또한 향후 평신도 사도직의 능동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서기로 다짐하며 파견미사를 봉헌하고 회원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 창작뮤지컬 순교복자 유항검의 딸 <유섬이> 공연

전주교구가 주최하고 교구 평단협 주관으로 열린 창작뮤지컬 <유섬이> 공연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지난 10월 27일 오후 3시와 7시에 열렸다.

2시간 반의 공연 시간 내내 관객들은 유섬이 가족사의 애절함과 숭고함에 숙연해졌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진한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평단협 한병성 회장은 "유섬이는 우리들과 같은 삶에서 순교를 보여줬다."면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태 주교는 "유섬이는 신앙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보다 더 낮은 삶, 어려운 삶을 살고, 토굴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 선조를 둔 우리가 자랑스럽다. 우리도 순교 선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것, 조금 더 힘든 것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산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섬이의 가족 다섯 분이 순교한 지 21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해, 유섬이가 71세로 선종한 지 151년 되던 2014년에 영원히 묻힐 뻔한 그녀의 가슴 저린 삶이 하성래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졌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8년 제주교구 묵주기도의 밤 행사 개최

제주교구에서는 평신도 회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묵주기도의 밤 행사를 교구 평협과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공동 주관으로 거행했다. 장소로는 제주 4·3 70주년의 의미가 깊은 북초등학교 교정과 관덕정 앞마당에서 4·3 유족과 교구민 2,800여 명이 함께하였다. 4·3 체험발표를 통해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한 조속하고 완전한 4·3 해결이 이루어지길 성모님께 간구하는 취지에 맞춰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진 의미 있는 행사였다.



• 평협 4/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평협은 10월 27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평신도 회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하였다. 또한 회년 폐막미사에서 전 참석자들과 '우리의 다짐'을 다짐하고, 격년마다 발간되고 있는 《제주평협》 제17호를 봉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및 교구 평협 회칙 개정을 통해 본당 지구별 대표를 맡고 있는 4개 본당 총 회장을 평협 임원이 되도록 하였다. 담당사제 황태종 신부는 새로운 회년의 삶을 상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뜻있게 펼쳐가자는 주문을 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회의를 했다.

• 회년 폐막미사 및 평신도의 날 간담회 개최

회년 폐막미사를 겸한 평신도 주일 미사가 11월

11일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문창우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미사에서는 새로운 회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전 교우들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하였으며, 격년마다 발간되는 '평협지'도 봉정하였다.

저녁에는 교구 내 평신도를 대표하는 28개 본당 총회장을 비롯하여 32개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 자문위원과 임원 등 65명을 초청하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문창우 주교는 그동안 평신도 회년을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온 것에 대해 감사와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회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자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유익한 기회였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내 안에서 다시 마리아를> 주제로 열린 제주 '하루 마리아폴리'



한국 포콜라레운동의 제주도 공동체가 지난 9월 30일 제주 신성여중에서 제주교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 등 총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루 마리아폴리를 개최했다.

〈내 안에서 다시 마리아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마리아폴리는 일상생활 중에 복음을 삶으로 살았던 경험담을 나누고 성모 마리아의 삶의 모범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하루 마리아폴리에 앞서 오전에 열린 회원 피정에는 제주교구에 포콜라레 정신을 처음 소개한 이태수 신부도 참석하여 제주 포콜라레 공동체를 격려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교구에는 일치의 영성을 전하는 포콜라레 생활말씀 모임이 4곳에서 매월 열리고 있다.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한국이사회

● 인도 · 라오스 · 인도네시아 재해구호기금 2,630만원 전달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회장 이충원, 담당사제 김영환)는 인도 케랄라 및 동남아시아 재해 재난 국가에 국제구호기금으로 모금된 26,303,000원을 지원하였다. 인도 케랄라 3,000,000원, 라오스 뎀봉괴 사고 11,500,000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에 11,500,000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이는 빈첸시오회의 기본정신인 '연대'와 '형제애'의 표현이다. 또한 빈첸시오회는 활동지표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합니다."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내외의 재해 재난 지역에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 집행위원회 워크숍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는 지난 10월 20~21일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집행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8년 가결한 검토와 2019년 활동지표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요한 1 3,18)를 지속적 지표로 삼기로 하였다. 또한 중점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운동, 이방인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청년 조직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광주중재자이신마리아세나투스

● 한국 평신도 회년 묵주기도 은혜의 날



광주중재자이신마리아세나투스(단장 조상현, 담당사제 이정화)는 10월 3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한국 평신도 회년 묵주기도 은혜의 날을 실시했다.

약 6,200명의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들은 "새 복음화의 증인 -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묵주기도 20단을 봉헌했다.

점심식사 후 성 십자가 보목 경배와 찬양에 이어 옥현진 시몬 총대리 주교의 특강이 있었다. 미사 후에는 50년 이상 근속 단원 15명과 광주 세나투스 직속 레지아 간부 17명에게 교황님 강복장 수여가 있었다.

● 교구 간부 연수회

광주중재자이신마리아세나투스는 11월 10일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서 교구 간부 연수회를 실시했다. 375명의 21개 꼬미씨움, 111개 꾸리아 4간부들이 모여 '평의원 레지오색을 바꾸다'라는 주제의 신경

숙 데레사 자매의 특강을 들었다.

이어 조상현 세나투스 단장이 2018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교구장 사목지표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활동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또한 레지오 창설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입교권면, 냉담교우 회두 접촉 활동을 전개하고, 레지오 마리아지 활용으로 레지오의 기본 정신 회복, 사제의 협력자로서의 레지오가 되는 것을 2019년 활동방향을 제시했으며, 옥현진 주교(광주대교구 총대리)의 파견미사로 연수회를 마쳤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2018 전국 하계수련대회 개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8월 13~15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가자! 자연과 하나 되는 주님의 잔치'라는 주제로 전국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신자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다. 올해

에는 한국 평신도 회년을 맞아 서울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열렸고, 전국에서 회원 및 봉사자 397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각 교구 사제단이 공동집전한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전국 선교회의 친교시간, 한국평협의 특강과 공연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법주사 산책, 장기 자랑, 윷놀이대회, 물놀이 등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신앙상식을 겨루는 퀴즈대회와 폐회미사로 주님께 감사 드리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평신도 회년 맞이 소록도 걷기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자, 담당사제 김정웅)는 10월 23~24일 광주대교구 소록도성당에서 각 교구의 여성연합회 회원 90여 명이 모여 평신도 회년 맞이 걷기행사를 가졌다.

시작미사를 집전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신자 회장이며 한국 교회의 기반을 다진 강완숙 골룸바의 굳은 신앙심과 희생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가협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소록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김연준 신부(소록도성당 주임)가 소록도의 역사와 한센인들의 삶을 소개했다. 둘째 날에는 치유의 길을 걸으며 묵주기도를 바쳤다. 한센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작은 상처는 큰 상처를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말씀에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광주대교구 옥현진 총대리주교는 “때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의 스토리는 다르더라도, 봉사자로 불림을 받은 자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은 것이니 감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한 가협 회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으로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생태 환경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자는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주최 2018년 정기 세미나 및 정기 이사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보건사목담당 유수일 주교, 회장 문정일)가 주관한 ‘2018년 정기 세미나 및 정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라는 주제로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이날은 한일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30주년 기념식도 동시에 진행하여 총 40개 회원 병원에서 246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일본 사회의료법인 논의성모회(이사장 이데 요시오)의 임직원 22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교류 30년 역사를 담은 ‘30주년 기념집’을 공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정기 세미나 및 이사회 개최지로 인천이 전원 동의로 결정되어 내년 10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2018년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연합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박호란)가 주최한 ‘2018년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이 지난 8월 17~18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피정은 ‘나의 영성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국 간호대학의 가톨릭 신자 대학생 19명이 참석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진솔한 나눔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9차 영성세미나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한 제9차 영성세미나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9월 28일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으로 서규석 씨, 김정웅 신부, 박은호 신부의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전국에서 15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서 돌보는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 한국평협 50주년 선언문 -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는 한국천주교회는 234년 전인 1784년에 평신도들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평신도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선조들은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겪었으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느님 백성의 사도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황들은 다양한 문헌과 교리서를 통하여 평신도의 위상과 책무를 교회 안팎에 천명하였습니다.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사제직·예언자직·왕직에 참여하며 복음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난 50년간 나침반과 같은 소임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나아갈 50년을 환히 밝히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혼보다는 물질, 정신보다는 육체, 영원보다는 찰나 중심의 삶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인간의 우월적이고도 자의적인 성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누리소통망(SNS)의 확산으로 인한 진리와 진실의 왜곡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에 직면하고 있어 평신도 사도직의 소임이 더욱 중차대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울러 한국천주교회 역시 외적으로 신자수와 본당수의 증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내적으로 미사 및 성사 참여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미지근한 신자가 급증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평신도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이들과 함께 협력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기도하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신앙선조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응답하여 하느님 구원사업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교회의 주체로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인으로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복음화의 길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1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미사와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영적 힘을 얻고, 이를 우리 사도직 활동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사도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활동이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이러한 삶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영적인 도움으로 특히 거룩한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에서 그 힘을 얻는다.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은 성사 특히 성체성사로 전달되고 자라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2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여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필리 3,8)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계시현장〉)

3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과 연대하여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말은 또한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에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사도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 하느님의 작품인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 하느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며 이어가겠습니다.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의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서한〉)

5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와 협력에 힘써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이 땅에 머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Editor's Letter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1년간 한국 평신도 회년을 지냈습니다. 지난 50년간 평신도의 삶과 자취를 되짚어보며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조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해이자 해방을 선포하는 해인 회년을 진정 복되고 경사스럽게 보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마리아보다는 시종들기에 분주하였던 마르타(루카 10,38-42)처럼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를 오색찬란하게 물들였던 단풍잎도 이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은 낙엽이 차디찬 겨울을 지내고 봄에 새싹을 틔우는 자양분이 될 것임을 알기에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회년을 마무리하며 먼 앞날의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립 100주년을 꿈꿉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함께 이룩할 50년 뒤의 찬란한 회년을 말입니다.

이번 호에는 평신도 회년을 마무리하면서 <특집>으로 '회년을 산 사람들'과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된 '평협 50주년 폐막식 참관기', 그리고 전국 교구에서 289명이 응모한 '한국 평신도 회년 기념 독후감 공모 최우수상 작품'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나눔>, 오늘날 평신도의 복음적 삶을 다각도로 조망한 <만남> · <이야기> · <배움>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글들이 독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의 밑알로 남기를 바랍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양분 말입니다.

새로운 평신도사도직 50년을 향하여 힘찬 첫걸음을 내디디며...

“메리 크리스마스!”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8년 12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mail.net
대전평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안영근	안토니오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